

朴通事新註新譯(三)*

李陸禾**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¹⁾과 <朴通事新註新譯(二)>¹⁾의 후속 작업으로, 제14단락부터 제22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신기로 한다. 본 논문의 研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引用한 文獻 등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14話 舍人打扮

午門³⁾外前看操⁴⁾馬去來。夜來⁵⁾兩個舍人⁶⁾操馬, 一個舍人打扮的, 脚穿着皂鹿⁷⁾皮嵌金線藍條子⁸⁾、捲尖粉底、五彩綉麒麟柳綠⁹⁾絢絲¹⁰⁾抹口的靴子¹¹⁾。白

* 이 연구는 2012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語科 教授

1) <朴通事新註新譯(一)>, 《中國學論叢》 第32輯, 2011年.

1) <朴通事新註新譯(二)>, 《中國學論叢》 第33輯, 2011年.

3) 午門: 午門是紫禁城的正門。午門建成於明永樂十八年(1420年)。

4) 操: 【夾註】操, 練也。謂軍士上番, 亦曰上操。

5) 夜來: 猶云昨日也。《西廂》之一之二: 「本云: “夜來老僧不在, 有失迎迓, 望先生恕罪。” 生云: “欲來座下講聽, 不期昨日不得相遇, 今能一見, 是在下三生有幸矣。” 法本口中曰夜來, 張生口中曰昨日, 夜來即昨日也。(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上海古籍出版社, 2009年, 頁652。)

6) 舍人: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也簡稱“舍”。《救風塵》一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兒周舍是也。」(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281。)

7) 鹿: 【夾註】大麋也, 麋鹿之大者。《譯語指南》謂牝鹿曰麋鹿。《質問》云: 大曰麋, 小曰鹿。其皮可作靴。

8) 條子: 指細長形的花紋。

9) 柳綠: 柳樹一樣的綠色。明·陶宗儀《輟耕錄·寫像訣》: 「凡調合服飾器用顏色者: 緋紅, 用銀朱紫花合。桃紅, 用銀朱燕支合。肉紅, 用粉爲主, 入燕支合……柳綠, 用枝條綠入槐花合。」

絨氈襪¹²⁾上, 絳着一副鴉青¹³⁾段子¹⁴⁾滿刺嬌¹⁵⁾護膝¹⁶⁾。

오문(午門) 밖에서 말을 조련하는 것을 보러 가자. 어제 두 사람이 말을 조련하는데, 한 사람의 차림새는, 발에 노루가죽에 금색과 남색 무늬를 넣고, 끝을 말아 올리고 하얀 신 바닥에, 오색실로 기린을 수놓고 녹색 비단으로 목을 두른 (가죽)장화를 신고, 희고 고운 모전(毛氈)으로 만든 버선에, 암청색 비단에 각종 문양의 수를 놓은 만지교(滿池嬌¹⁷⁾의 슬갑(膝甲¹⁸⁾)을 매었다.

衫兒¹⁹⁾、袴²⁰⁾兒、裹肚²¹⁾等裏衣且休說, 刺通袖²²⁾膝襪²³⁾羅帖裏²⁴⁾上, 珊瑚

10) 紵絲: 就是“緞子”。《明代的絲綢衣料》:「宋人吳自牧《夢梁錄》卷十八:“紵絲染絲所織, 諸顏色有織金、閃褐、間道等類。」又《吳縣志》卷五十一稱:“紵絲俗名緞, 因造緞字。”

11) 靴子: 幫子略呈筒狀高到踝子骨以上的鞋。又稱馬靴和高筒靴。

12) 氈襪: 用氈作的襪子。

13) 鴉青: 鴉羽的顏色。即黑而帶有紫綠光的顏色。暗青色。

14) 段子: 緞子。《水滸傳》二回:「史進并太公苦留不住, 只得安排一個宴席送行, 托出一盤兩個段子, 一百兩花銀謝師。」(吳士助·王東明 主編, 《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教育出版社, 1992年, 頁262。)

15) 滿刺嬌: 【夾註】《質問》云: 以蓮花、荷葉、藕、鴛鴦、蜂、蝶之形, 或用五色絨綉, 或用彩色畫於段帛上, 謂之滿刺嬌。今按: “刺”, 新、舊原本皆作“池”, 今詳文義, 作“刺”是。“池”與“刺”音相近而訛。

16) 護膝: 一種用厚布做成, 用以保護膝部的裹筒。

17) 原文‘滿刺嬌’에 대해서 【夾註】의 설명(‘刺’, 新、舊原本皆作‘池’, 今詳文義, 作‘刺’是。‘池’與‘刺’音相近而訛)대로라면 《朴通事諺解》本 이전의 《朴通事》本에는 ‘滿刺嬌’가 아닌 ‘滿池嬌’로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陳高華는 《從老乞大、朴通事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이라는 글에서, ‘滿刺嬌’가 아닌 ‘滿池嬌’가 맞고, ‘滿池嬌’는 당시 宮中 등에서 유행했던 수(繡)의 도안(圖案)임을 당시의 사람 가구사(柯九思)와 장욱(張昱) 두 사람의 작품을 통하여 고증을 하였다. (元代中期詩人柯九思曾在宮中任職, 他的《宮詞一十五首》是膾炙人口之作, 其中一首云:“觀蓮水波汎欄橈, 翡翠鴛鴦戲碧莖。說與小娃牢記取, 御衫綉作滿池嬌。”柯氏自注云:“天歷間御衣多爲池塘小景, 名曰滿池嬌。”天歷是元文宗的年號。時代略晚於柯九思的詩人張昱有《宮中詞》, 其一是:“鴛鴦鸞鷲滿池嬌, 彩綉金茸日幾條。早晚君王天壽節, 要將著御大明朝。”其意與柯九思詩相同。由以上二詩可知“滿池嬌”是一種宮廷中服裝圖案的名稱, 描寫的是池塘中的花、鳥景色, 因而得名。宮廷中所好必然影響到宮廷之外, 首先是上層貴族、官僚。《朴通事諺解》記述的“操馬”“舍人”, 無疑是貴族官僚子弟, 他們最容易效法宮廷的生活方式。因此, 正确的是“池”不是“刺”, 《朴通事》的“原本”是對的, 《諺解》本改“池”爲“刺”是錯的。)(《韓國研究論叢》, 2008年 第2期)

18) 諺解에 ‘슬갑’으로 되어 있다. 슬갑(膝甲)은 “지난날, 추위를 막기 위해 바지위에 끼입던,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 앞쪽에 끈을 달아 허리띠에 걸쳐 맨다.”라는 국어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19) 衫: 指無袖頭的開衩上衣。

20) 袴: 同“褲”字。

鉤子²⁵)繫腰²⁶)。五六件兒刀子,象牙頂兒。玲瓏龍頭解錐兒²⁷),象牙細花兒挑牙²⁸),鞘兒²⁹)都全。

적삼³⁰)과 바지 그리고 복대(腹帶) 등과 같은 속에 받쳐 입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긴소매자락에 용을 수놓은 스란(膝襪)³¹)의 비단 철릭³²)에, 산호

- 21) 裹肚: 宋元時男子長衣外包裹腰肚的綉袍肚。宋·陸游《老學庵筆記》卷二:「又祖妣楚國鄭夫人有先左丞遺衣一篋,袴有綉者,白地白綉,鵝黃地鵝黃綉,裹肚則紫地阜綉。祖妣云:‘當時士大夫皆然也。’」《元典章·工部三·役使》:「祇候不繫只孫裹肚。」
- 22) 通袖: 長袖。《金瓶梅詞話》第四十回:「到次日,西文慶衙門中回來,開了箱櫃,打開出南邊織造的夾板羅殺尺頭來。使小廝叫將趙裁來,每人做件粧花通袖袍兒,一套遍地錦衣服,一套粧花衣服。」
- 23) 膝襪: 蟒服。明代的一種制服。《明史·輿服志三》:「永樂以後,宦官在帝左右,必蟒服……膝襪,亦如曳撒,上有蟒補,當膝處橫織細雲蟒,蓋南郊及山陵扈從便於乘馬也。」
- 24) 帖裏: 【夾註】元時好着此衣,前後具胸背,又連肩而通袖之脊,至袖口爲紋,當膝周圍亦爲紋如欄杆,然織成段匹爲衣者有之,或皮或帛,用綵線周遭回曲爲緣,如花樣,刺爲草樹、禽獸、山川、宮殿之紋於其內,備極奇巧,皆用團領着之,其直甚高。達達之俗,今亦猶然。
- 25) 鉤子: 【夾註】用金銀銅鐵(鐵)玉角等物,刻成龜龍獅虎之頭,繫之於條之一端,人若帶之,則又以條之一端屈曲爲環,納於鉤頭之空,以爲固,使不解落,如條環之制然。
- 26) 繫腰: 腰巾,腰帶。元·鄭廷玉《忍字記》第二折:「我一只手將繫腰來采住向前招。」《元史·順帝紀六》:「答失八都魯克復襄陽、樊城有功,升四川行省右丞,賜金繫腰一。」“繫腰”當指《黑韃事略》中“用紅、紫帛捻成線,橫在腰上的“腰線”,屬於蒙古傳統服裝辮線襖的基本特徵,參證《元史》(卷143)《自當傳》的“乃賜秃滿迭兒黃金繫腰”,葉子奇《草木子》(卷3下)“帽子繫腰,元服也”,《通制條格》(卷27)《雜令·控鶴等服帶》中伯顏上奏禁止普通民戶“繫着裹肚、繫腰”這三條史料,可以確證此點。(鐘焯,《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歷史研究》,2008年 第1期。)
- 27) 解錐兒: 解結錐。亦省稱“解錐”。古代骨制的解結用具,形如錐。《禮記·內則》:「左佩粉帨、刀、礪、小觿、金燧」鄭玄,注:「小觿,解小結也。觿貌如錐,以象骨爲之。」唐·陸德明《釋文》:「觿……解結錐。」清·蒲松齡《聊齋志異·蓮香》:「贈綉履一鉤……(桑生)受而視之,翹翹如解結錐。」元·曾端《哨遍·羊訴冤》套曲:「把我蹄指甲要舒做晃窗,頭上角要鋸做解錐。」
- 28) 挑牙: 金屬剔牙籤。《三刻拍案驚奇》第九回:「耿直看看四下無人,就將袖裏一個銀挑牙,連着筒兒把白綱汗巾包了,也打到婦人身邊。」(許少峯 編,《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頁1844。)
- 29) 鞘兒: 裝刀、劍的套子。
- 30) 原文의 ‘衫兒’은 소매 단이 없는 뒷저고리를 말한다. ‘적삼’이라고 한 것은 ‘諺解’의 풀이를 따른 것이다.
- 31) 原文의 ‘膝襪’에 대해서 사전에는 「치맛단에 금박을 박아 선을 두른 것. 옛날 궁중이나 반가(班家)의 부녀자들의 예장용 치마에 장식했던 것으로, 폭은 약 20cm이며, 용·봉 따위의 무늬를 놓는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조선조에 이르러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주석 23)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明代에 이르러 朝廷의 宦官들은 ‘蟒服’을 입었는데, 이것을 ‘膝襪’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元典章》이나 《明史·輿服志》의 기록을 보면 ‘膝襪’이 임금의 곤룡포(袞龍袍)에서 변형되어 민간에게까지 흘러들었음을 볼 수 있다.(明·沈德符《萬曆野獲編·補遺》卷二說:「蟒衣如像龍之服,與至尊所御袍

로 조각하여 만든 고리장식의 허리띠를 하였다. 대 여섯 자루의 칼은, 상아로 손잡이 끝을 장식하였고, 영롱한 용머리의 뿔송곳³³⁾, 세밀하게 조각을 한 상아 이쑤시개³⁴⁾에, 칼집까지 모두 갖추었다.

相肖，但減一爪耳。」《元典章》卷五十八記大德元年(公元1297年)，不花帖木耳奏：「街市賣的毬子似皇上御穿的一般，用大龍，只少一個爪子。四個爪子的賣者有着呵。」《明史·輿服志》：「宦官在帝左右必蟒服，……綉蟒於左右，繫以鸞帶。……次則飛魚……單蟒面皆斜向，坐蟒則正向，尤貴。又有膝襪者，亦如曳撒(據《碎金》稱作曳撒)，上有蟒補，當膝處橫織細雲蟒，蓋南郊及山陵扈從，便於乘馬也。或召對燕見，君臣皆不用袍而用此。但蟒有五爪四爪之分，襪有紅、黃之別耳。」

- 32) 原文 '帖裏'에 대해 諺解에는 '털릭'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칠릭'에 대한 우리말 사전에는 「무관의 공복(公服)의 한 가지. 직령(直領)으로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큰 소매가 달렸음」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신기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 33) 原文의 '解錐兒'는 단단히 묶은 천막의 끈 밧줄 따위를 푸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다음은 중국 인터넷 '百度'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解錐兒'의 정확한 모양이나 용도 등을 알 수가 있다. 「寧夏首次發現西夏人頭像鹿角解錐 - 新華社銀川電(宋兆凡)寧夏回族自治區海原縣文物工作者最近在縣內西夏遺址中發現一件人頭像鹿角質解錐，這件曾用做解開緊固帳篷繩索及其他繩索工具的文物已被確定為國家一級文物。」「據介紹，西夏開國皇帝李元昊曾在海原縣設有行宮。目前發現於此的解錐是利用鹿角的自然形態稍做加工而成，長12.9厘米，錐角直徑在1.8至2厘米不等，角尖用做解錐的尖，角根雕有人頭像和繫繩孔，便於攜帶和把握。」(摘自中國網-百度)
- 34) 原文의 '象牙細花兒挑牙'는 '정교한 무늬로 조각되어 있는 상아 이쑤시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상아 이쑤시개 통(筒)'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中國象牙雕刻藝術》에서 「無論北京彩繪牙雕，廣州的象牙球，還是上海的細花鏤空牙雕，均各具千秋，享譽中外。」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原文의 '細花兒'는 세밀한 무늬를 새겨 넣는象牙彫刻의 한 기법으로 보인다. '挑牙'는 글자 그대로 '이쑤시개'이다. 말을 조련하는 멋진 차림의 '舍人'의 허리에 이쑤시개를 넣는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상아로 만든 '통(筒)'을 차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칫솔 등이 없는 당시의 '挑牙'는 남녀노소의 필수품으로, 鑷子(족집게), 耳挖(귀이개) 등과 함께 '三事兒'이라고 하여 줄을 달아 허리에 차거나 손수건 끝에 묶어 소매 속에 넣고 다녔다. 아래의 글은 2010년 7월 中國 廣州日報에 실린 것으로 明代의 무덤에서 발굴된 세 가지 형태의 '三事兒'에 관한 내용이다. (浙江臨海王士琦墓出土明代所謂"事件兒", 原是佩飾的一種, "三事兒"通常也只是泛稱, 事可以比"三"多, 也可以比"三"少. 耳挖、鑷子、挑牙, 是爲三事, 挑牙、耳挖合爲一副也很常見, 而每一事也不妨是單獨的. ……《金瓶梅詞話》第二十八回稱潘金蓮"向袖中取出一方細撮穗白綾挑線鶯鶯燒夜香汗巾兒, 上面連銀三字(事)兒"; 又同書第五十九回, 說到愛月兒從西門慶的袖子裏掏出個紫縐紗汗巾兒, 上拴着一副揀金挑牙兒, 皆是此類. 這裏的"揀金", 亦即減金. 它是流行於元明時代的對金銀器加工方法的一種稱謂, 即在鋼鐵活兒上填嵌金銀. 那麼所謂"揀金挑牙兒", 便是錯金的挑牙兒. 總之, 三事兒是家常帶着的小用具, 以鍊索爲繫, 或連筒或不連筒. 多半拴在汗巾角兒上, 揣在衣裳袖子裏, 隨身攜帶, 男女皆然. 江蘇泰州明徐善夫婦墓男性墓主人補服左邊的袖子裏, 有一方豆黃色的素網汗巾, 汗巾一角繫一根銀索, 其端連着一枚銀牙籤. 又南通博物苑藏明墓出土的一副金鍊寶事件, 以金索穿繫飛魚柄的耳挖和挑牙, 上邊又綴一個金鍊寶玲瓏毬, 再一個金鍊寶荷葉蓋爲收束, 金索頂端的小環用於佩繫. 惟所嵌寶石悉數脫落. 出自王士琦墓

明綠抹絨³⁵⁾胸背的比甲³⁶⁾, 鴉青³⁷⁾綉繡四花織金羅搭護³⁸⁾。江西³⁹⁾十分上等眞結綜帽⁴⁰⁾兒上, 綴着上等玲瓏羊脂玉⁴¹⁾頂兒⁴²⁾, 又是個鷓鴣⁴³⁾鴉翎兒。

녹두 색(明綠)⁴⁴⁾ 우단(抹絨)⁴⁵⁾ 흉배(胸背)의 비갑(比甲)⁴⁶⁾과 짙은 청색의

的金三事連博古圖減銀筒, 以金鏈繫着筒蓋, 內置耳挖、挑牙各一事, 金筒上的香爐、花瓶、花盆, 書函、硯台, 摺疊扇、芭蕉扇等先依樣刻出槽來, 然後分別以銀絲一一填嵌。蓋面所飾竹木山石也是用着同樣的方法。同出尙有金三事連捧桃侍女金筒一副, 耳挖和挑牙用鏈子連在一起貫穿在一個做成捧桃仕女的小金筒裏, 用的時候拉出來, 用單裝入, 然後用一枚連枝帶葉的小桃子塞住筒口, 是造型設計极具巧思的一例。(摘自中國網 - 百度)

- 35) 抹絨: 在天鵝絨上鋪透空花版, 用刷子蘸白芨膠水將花部絨毛向相反方向刷抹, 使之顯出暗花。
- 36) 比甲: 古時一種便於騎射的服裝。類似後來的背心。《元史·后妃傳一·世祖后察必》:「后又制一衣, 前有裳無衽, 後長倍於前, 亦無領袖, 綴以兩襷, 名曰比甲, 以便弓馬, 時皆仿之。」【夾註】胸背, 凡於紗羅段帛之上, 以綵絨織胸背之紋, 裁成衣服者也。(中略)衣之無袖, 對襟爲裳積者曰「比甲」, 卽本國뉘지털릭。婦女亦依此制爲短襖着之, 亦曰「比甲」, 通稱搭護。
- 37) 鴉青: 暗青色。
- 38) 搭護: 亦作「答忽」。元代蒙古人衣服中有一種皮襖。蒙古語叫「daqu」。答忽有兩種, 一種是毛向外的羊皮答忽, 對襟無領, 在後下擺處有開衩, 主要是牧民在冬季穿在長袍外面; 另一種是毛向裏, 有面有裏的答忽, 主要是富貴之家天冷是服之。據史料分析(《中國全史(14)》), 答忽有兩種式樣。一種是《元史·輿服志》中的「襪子答忽」卽有扣襪的答忽。《元史語解》卷二四名物門:「達呼, 皮端罩也。」卷七十八作「答忽」。這是無袖皮背心之屬。卽沒有雙袖的上衣。《事物紀原》卷三「半臂」:「今背子也。江淮之間, 或曰綽子。今俗名搭護。」【夾註】《事物紀原》云: 隋內官多服半臂, 餘皆長袖。唐高祖減其袖, 謂之半臂, 卽今背子也。江淮間或曰綽子, 庶人競服之。今俗呼爲搭護, 더그레。
- 39) 江西: 【夾註】古揚州地, 今置承宣布政使司。
- 40) 綜帽: 椶帽。似「駝帽」。駝(駝), 或作「棕」。棕, 同「椶」。也叫「纏棕帽」, 「瓦楞帽」, 「四方瓦楞綜帽」。一種用棕、藤編織成的帽子, 樣子像一鐘狀的盔, 元明之間很流行。【夾註】椶, 木名, 高一二丈, 葉如車輪, 旁無枝, 皆萃於木杪。其下有皮, 重疊裹之, 每皮一匝爲一節, 花黃白色, 結實作房, 如魚子狀, 其皮皆是絲而經緯如織, 傍有細縷, 交相連綴不散。取其絲理之, 以結成大帽。又剝其皮一匝, 編爲蓑衣, 亦可避雨。
- 41) 羊脂玉: 又稱「白玉」、「羊脂白玉」, 爲軟玉中之上品, 極爲珍貴。
- 42) 頂兒: 卽「帽頂兒」。中國古代頭盔上的裝飾物。
- 43) 鷓: 亦寫「鷓」。亦作「鷓鷩」。水鳥名。俗叫魚鷹、水老鴉。羽毛黑色, 有綠色光澤, 頷下有小喉囊, 嘴長, 上嘴尖端有鈎, 善潛水捕食魚類。漁人常馴養之以捕魚。
- 44) 原文的「明綠」은 綠豆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녹두 색'을 말하고 있다.
- 45) 原文의 '抹絨'은 絨(솜털이 일어나게 짠 피륙)의 일종으로, 우단(비로드)에 무늬가 더욱 선명하도록 가공을 가한 움(絨)직물을 말한다. 다음은 《明代의服飾藝術》이라는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明代의 絲絨에는 '抹絨'을 비롯한 모두 7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 剪絨: 爲絨圈地上割斷一部分絨絲, 成爲絨花的織物。2. 天鵝絨: 爲單面滿地起絨的織物。3. 双面天鵝絨: 爲双面起絨的織物, 北京定陵有雙面天鵝絨四合如意綉龍補女衣實物出土。4. 抹絨: 在天鵝絨上鋪透空花版, 用刷子蘸白芨膠水將花部絨毛向相反方向刷抹, 使之顯出暗花。5. 織金絨: 在片金或捻金地上織出單色絨花。6. 妝花絨: 在緞地或絨地上織出彩色絨花。7. 織金妝花絨: 在金地上織出彩色絨花。」(摘自 中國網 百度)
- 46) 原文 '比甲'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뉘지털릭'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뉘지'는 「갸움이

꽃무늬를 수놓은 ‘織金⁴⁷⁾의 더그레(搭護⁴⁸⁾를 입었다.⁴⁹⁾ 머리에는 강서(江西)지방의 최고급 眞結綜帽⁵⁰⁾를 썼는데, 모자 꼭지에는 영롱한 고급 양지옥(羊脂玉) 구슬(頂子)이 달려 있고, 거기에다 가마우지와 무수리의 깃털 장식 을 하였다.

騎着一個墨3丁也似⁵¹⁾黑五明馬⁵²⁾, 鞍子⁵³⁾是一個烏犀角邊兒幔⁵⁴⁾玳瑁⁵⁵⁾, 油心紅⁵⁶⁾畫水波面兒的鞍橋子⁵⁷⁾。雁翅板⁵⁸⁾上釘着金絲減鐵⁵⁹⁾事件⁶⁰⁾。紅斜皮

나 마고자 따위의 싯. 앞을 여미지 아니하고 두 쪽이 나란히 맞닿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사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또한 ‘싯’은 또 ‘옷싯’이라고 하는데, ‘옷싯’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형질’을 말함이다. 그러므로 ‘比甲’는 ‘뚝지(옷싯)가 있는 철릭’을 말함이다. 위의 註 36)번의 中國 文獻에서의 설명처럼 ‘比甲’은 ‘말 타기와 활쏘기에 편한 옷으로 깃과 소매가 없는 것으로 지금의 조끼와 같음’이라는 설명이 맞다.

- 47) 原文의 ‘織金’은 남빛 바탕에 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의 무늬를 섞어 짠 직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織金’을 ‘금실로 수놓다’ 등으로 번역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48) 原文의 ‘搭護’에 대해서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매 없는 겉옷으로, 이러한 ‘搭護’, ‘搭胡’는 나중에 ‘馬掛(馬掛)’로 변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복의 ‘마고자’와 유사한 형태로 추측된다. ‘搭護’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더그레’라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搭護’, ‘搭胡’의 音譯으로 보인다.
- 49) 위의 註 36)번과 38)번의 【夾註】를 살펴보면, ‘比甲’과 ‘搭護’는 동일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50) 原文의 ‘櫻帽’는 ‘駮帽’ 또는 ‘纏棕帽(櫻과 棕은 같은 글자임)’라고 하기도 하는데, 종려나무의 껍질과 등나무 등으로 짠 모자를 말하는 것으로, 모자의 형태는 종(鐘)모양의 투구(盔) 같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모자로 당시 몽고족 남자들이 즐겨 쓰는 ‘瓦楞帽’라고 불리는 모자가 있다. 原本《老乞大》(影印本 38쪽,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 二冊, 78쪽, 中華書局, 2005年)에서 ‘桃夫櫻帽一百箇’, ‘圓櫻帽兒一百箇’, ‘織結櫻帽兒一百箇’ 등의 文句를 볼 수 있는데, 原本《老乞大》에서의 ‘織結櫻帽’과 本文의 ‘眞結綜帽’가 같은 것으로 보인다.
- 51) 也似: 表示比喻的詞 相當於, “一般”, “一樣”. 《前漢書》卷上: 「忽見東南上一陣軍馬, 約到三千餘騎, 如勝也似來。」
- 52) 五明馬: 因馬的四蹄白如霜雪, 肩上一片白毛, 故名. 亦作“五明驥”。
- 53) 鞍子: 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騎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 54) 幔: 蒙蓋. 《西遊記》第六回: 「列公將天羅地網不要慢了頂上。」(張永言等編, 《簡明古漢語字典》, 四川人民出版社, 1986年)
- 55) 玳瑁: 亦作“瑯瑁”. 爬行動物. 形似龜. 甲殼黃褐色, 有黑斑和光澤, 可做裝飾品. 甲片可入藥. 李時珍, 《本草綱目·介·玳瑁》(集解), 引宋·范成大, 《虞衡志》: 「玳瑁生海洋深處, 狀如龜鼈, 而殼稍長. 背有甲十二片, 黑白斑文, 相錯而成。」此指“指玳瑁的甲殼. 亦指用其甲殼制成的裝飾品.”
- 56) 油心紅: 【夾註】《質問》云: 朱紅, 一云如心之紅也. 油, 加油於紅漆之上也. 又云: 油乃牛字, 非油也, 其色紅如牛心。
- 57) 轎子: 鞍具. 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乘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亦作“鞍

心兒，藍斜皮細邊兒金絲夾縫的鞍座兒，黃狍皮⁶¹軟座兒。藍斜皮細邊刺靈芝草，羊肝漆⁶²粘⁶³。銀絲珥⁶⁴獅子頭的花鐙⁶⁵。狍皮心兒藍斜皮邊兒的皮汗替⁶⁶。大紅斜皮雙條轡頭⁶⁷。帶纓筒，鞞⁶⁸皮穗兒、鞞根⁶⁹都是斜皮的。攀胸下滴溜⁷⁰着一個珠兒網蓋兒罕答哈。

떡같이 검은 오명마(五明馬)를 닳는데, 말안장은 오서각(烏犀角: 무소의 뿔)테에 대모(玳瑁: 바다거북 등껍질)를 새기고, 주홍빛⁷¹으로 물결무늬를

鞞。馬鞍。其拱起處形似橋，故稱。一種凹形馬鞍。兩晉南北朝時，馬鞍前後起橋，因兩鞍橋均直立，所以稱之為“兩橋垂直鞍”。隋唐以降，鞍橋的形制又有了新的變化，表現為前鞍橋高而直立，後鞍橋向下傾斜，可稱之為“後橋傾斜鞍”。

58) 雁翅板：鞍板。高明《琵琶記》第十出：「(丑)元有一萬匹馬。……那更鞍橋又破損，坐褥又傾欹，抽轡盡是麻繩，鞭子無非荊杖，餓老鴟全然拉塔，雁翅板一發雕零，鞍轡既不周全，牽鞵何曾完備。按，一副鞍鞍一般由四大塊木料組成，兩塊凸形的鞍板和兩塊凹型的鞍轡。」

59) 減鐵：所謂“減鐵”、“減銀”，原是金銀器加工方法的一種稱謂，前者是在鐵物上嵌銀絲，後者是在銀器上嵌金絲。此項工藝似起源於北方，宋佚名，《百寶總珍集》卷六(“減鐵”條前所冠口訣云)：「減鐵元本北地有，頭巾環子與腰條。馬鞍作子并刀靶，如今不作半分毫。」(揚之水，《江西省博物館藏宋元金銀器叢考》)

60) 事件：部件，零件。(許少峯 編，同前揭書，頁1701.)

61) 狍皮：【夾註】《質問》云：羊皮去毛，熟軟，有紫鬚。作鞞好看。今按，“狍”字韻書不收，字義未詳。

62) 羊肝漆：蟲膠。俗稱羊肝漆或膠片漆、蟲膠漆。蟲膠來自寄生在樹木的紫膠虫的分泌物。蟲膠經過的溶解或溶化除去雜質再經漂白，制成蟲膠片。蟲膠漆調制過程相當簡單，將蟲膠片加入酒精中溶解就可以。(摘自中國網、百度)

63) 粘：“韃”。鞍下墊鞍褥，多為毛氈制作，以防磨損馬背。鞍韃下有障泥，是一種設於鞍韃之下垂懸馬腹兩側障塵擋泥用的馬具。

64) 珥：戴；挿。

65) 鐙：鐙子。掛在馬鞍兩旁的鐵制脚踏。

66) 汗替：鞞屨。汗，音借“鞞”。替，音借“屨”。(何茂活，〈老乞大輯覽、單字解訓話方法評介〉，《中國蘭州大學學報》第36卷2期，2008年。)替，即“替子”。指鞍下之韃。韃，慧琳，《一切經音義》卷六十一：“鞍下毛氈替。”(李申 著，《金瓶梅方言俗語匯釋》，北京師範學院出版社，頁1992。)替子，馬鞍，屨子。《金瓶梅詞話》六八回：“一面牽出大白馬來，搭上替子，兜上鞞環，躡着馬臺，望上一驅，打了一鞭。”(許少峯 主編，東前揭書，頁1113.)

67) 轡頭：駕馭牲口的嚼子的繩繩。繩繩繞過馬項，兩端分別繫於銜兩側環上，呈封閉式半圓狀，騎者握繩以馭馬。

68) 鞞：同“鞞”。也稱後鞞，指套車時洛於服馬臀部的革帶。

69) 鞞根：即鞞軸。宋·沉括，《夢溪筆談·故事一》：「自後雖去蹀躞，而猶存其環，環所以銜蹀躞，如馬之鞞根，即今之帶銜也。」鞞軸，拴在牲口股後繫皮帶的軸。(《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卷12，1993年)

70) 滴溜：此作“提起”、“拎”解。

71) 原文의 ‘油心紅’에 대해서 【夾註】에서는 ‘質問’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朱紅’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 또한 ‘심장과 같이 빨갱다’, ‘油는 牛의 글자로 붉기가 소의 심장과 같다’ 등의 설

그려 넣은 그러한 안장⁷²⁾이다. 안장의 궁글 막대(雁翅板⁷³⁾)에는 金絲를 상감⁷⁴⁾한 장신구가 박혀있다. 빨간색 사피(斜皮⁷⁵⁾) 바탕에, 푸른색 사피로 가는 테를 두르고 금실로 꿰매 가죽과 부드러운 전피(狹皮⁷⁶⁾)로 깔개를 한 鞍裝을 하였다. 푸른색 사피로 가늘게 테를 두르고 영지초(靈芝草)를 수놓고, 양간칠(羊肝漆⁷⁷⁾)을 한 말다래⁷⁸⁾, 은으로 입사를 한 사자머리 모양의 등자⁷⁹⁾쇠

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보면 '油心紅'은 '牛心紅'이고, '牛心紅' '자두 색' 또는 '감 색'의 색깔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金瓶梅與北京初探》(丁朗, 北京文史, 2005年): 「李子是一種含汁較多, 因而不易保存, 更不宜於長途運輸的水果。……明朝萬曆年間編纂的《順天府志》, 就記載過北京特產的李子的品種, 有玉皇、青脆、牛心紅等。……至於「牛心紅」, 北京有種李子就叫這概名字已如上述; 但我認為, 在這個小曲裏, 它指的實際上也許是北京附近產的一種柿子。東安是明代順天府管轄的一個小縣, 位於大興以南不遠。」李光昭, 《東安縣志》謂: 「牛心紅, 卽小紅柿。」(摘自中國網, 百度))

- 72) 原文의 '鞍橋子'는 말을 편하고 안장감이 있게 타기 위한 승용구로서 말안장 앞뒤로 굽자 모양의 장식을 말한다. 앞쪽의 부분을 '앞가리개(前輪)', 뒷부분의 것은 '뒷가리개(後輪)'라고 한다. 다리처럼 생겼다하여 '橋'라고 하기도 한다. '鞍橋'는 '鞍裝'을 달리 이르는 말로, 그 모양이 다리와 비슷하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 73) 原文 '雁翅板'에 대한 諺解는 '둥울'이라고 하였다. '둥울'은 '둥우리막대'로 '길마의 궁글막대'아래에 수수 잎처럼 들어막아서 댄 나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말의 안장은 거의 나무로 틀을 짜는데, 모두 네 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개 중에서, 두 조각은 앞쪽의 부분을 '앞가리개(前輪)', 뒷부분의 것은 '뒷가리개(後輪)'라고 하는 안교(鞍橋)이고, 이 두 가리개를 연결시키는 두 개의 날개 같은 판자가 바로 '雁翅板'인데, 일반적으로 안판(鞍板)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궁글막대' 즉 '소의 등에 있는 안장에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를 말하는데, 諺解의 '둥우리막대'보다는 '궁글막대'가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궁글막대'로 번역을 하였다.
- 74) 原文의 '減鐵'은 당시의 金銀器에 象嵌을 입히는 加工의 名稱이다. 앞의 註 59)번에서처럼 鐵物에 銀絲를 上嵌시키는 것을 '減鐵'이라 하고, 銀器에 金絲를 上嵌시키는 것을 '減銀'이라고 한다.
- 75) 原文의 '斜皮'에 대해서 우리말 사전과 문헌에서는 '獵皮(돈피)'로 해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獵皮는 '담비의 가죽', 즉 '담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
- 76) 原文의 '狹皮'의 '狹'는 사서(辭書)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纂譯老乞大》의 諺解에서 "던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피'는 '무두질한 양피', 즉 털과 기름을 뽑아 부드럽게 만든 양가죽을 말한다.
- 77) 原文의 '羊肝漆'은 칠의 일종으로, 옫나무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벌레의 분비물에서 얻는다는 위의 註 62)번의 설명을 볼 수 있다. '羊肝漆'은 '셀락(shellac)'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백과」에서도 「천연수지의 일종으로 인도와 타이에 많이 사는 깍지벌레인 락각지벌레(Laccifer lacca)의 분비물에서 얻는다. 담황색 또는 황갈색이며, 얇은 판·입자·가루 등 여러 형태의 것이 있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 78) 原文 '靴'에 대한 언해는 '드레'로, '말도래'는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아니하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 79) 原文의 '籠子(등자)'는 말을 탔을 때 두 발을 디디는 기구이다.

(발걸이), 전피 바탕에 푸른 사피로 테를 두른 언치⁸⁰), 진홍빛 사피로 만든 두 가닥의 말굴레⁸¹),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인 술 몽치⁸²)와 밀치끈⁸³)의 삭모(禦毛), 그리고 밀치끈의 굴대 등은 모두 사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가슴걸이에는 실 구슬이 달린 덮개와 간다개⁸⁴)가 매달려 있다.

又有一個舍人打扮的, 白麁⁸⁵)皮靴子, 鴨綠羅納繡⁸⁶)獅子的抹口. 青絨氈襪上, 拴着一對明綠綉四季花護膝. 柳綠蟒龍織金羅帖裏, 嵌八寶骨朵⁸⁷)雲織金羅比甲,

- 80) 原文의 ‘靴’은 ‘鞣’으로서, 안장이나 길마 밑에 끼는 깔개(방석이나 깔개)를 말한다.
- 81) 原文의 ‘轡頭’은 ‘고삐’로서 말이나 소를 물거나 부리려고 코뚜레, 굴레에 잡아매는 줄을 말한다.
- 82) 原文 ‘帶纓筒’에 대한 《翻譯老乞大》에서는 「숫동조차 있고」라고 이해하고 있다. ‘숫동’은 ‘가슴걸이’의 의미를 가지는 옛말이다. 《朴通事諺解》에는 「번영을 드라고」라는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번영’은 「가슴에 다는 물건」의 의미를 가지는 옛말이다. 原文의 ‘纓’字의 고대한어사전을 찾아보면 역시 앞의 두 가지 해석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말의 가슴걸이(纓, 馬鞅也)’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 술(《左傳·桓公二年》“鞶、厲、游、纓” 晉·杜預注: “纓, 在馬膺前, 如索裙.” 孔穎達疏: “服虔云: “纓如索裙, 今乘輿大駕有之.” 然則漢魏以來, 大駕之馬膺有索裙, 是纓之遺象, 故云如索裙也。))’을 말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앞뒤의 문맥을 보아 ‘帶纓筒’을 가슴걸이에 다는 장식인 술로 보았다.
- 83) ‘밀치’는 말이나 당나귀의 안장이나 소의 길마에 걸고 꼬리 밑에 거는, 좁다란 나무 막대기(가죽)나 또는 잡아매는 끈을 말한다.
- 84) 原文의 ‘罕答哈’에 대해 《翻譯朴通事》에서는 ‘간다개’로 이해되고 있다. ‘간다개’는 ‘罕答哈’의 음譯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漢語詞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간다개’는 「말 머리에서 고삐에 매는 끈(네이버 국어사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고, 「말 가슴 아래에 드리우는 장식. 말 가슴 사이에 드리우는 홍상모(紅象毛)나 가슴걸이에 다는 비이삭 모양의 실 수어. 말의 목 아래 상모 다는 것을 지칭하기도 함(네이버 용어사전)」이라는 설명과 함께 用例(간다개는 말 가슴 아래에 드리우는 장식이다: 看多介 馬胸下所垂之裝)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말머리에서 고삐에 매는 끈’보다는 간다개에 다는 장식(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서 오는 本文의 문장 ‘野狗尾子罕答哈(들개 꼬리모양의 간다개)’에서 짐작이 된다. 즉 여우나 들개 꼬리로 이삭 모양의 술을 만들어 간다개의 장식으로 매달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또한 原文의 ‘網蓋兒’는 ‘구멍이 나 있는 덮개’, ‘그물 모양의 덮개’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말의 이마나 앞가슴에 장식용의 덮개(가리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85) 麁: 俗稱麁子. 像鹿, 比鹿小, 腿細而有力, 善於跳躍, 皮很軟可以制革.
- 86) 納繡: 紗綉針法之一. 蘇綉稱“戳紗”, 北方稱“納紗”. 以素紗爲綉底, 用彩絲綉滿紋樣, 四周留有紗地. 【夾註】以未合絲滿綉紗面, 不令紗之本質外見者. 綉, 亦作繡.
- 87) 骨朵: 本指古代的一種兵器. 是一長棒, 頂端綴一蒜形或蒺藜形的頭, 以鐵或堅木制成. 唐以後用爲刑杖. 宋以後并用爲儀仗, 俗稱金瓜. 《宋史·儀衛志二》: “凡皇城司隨駕人數, 崇政殿祇應親從四指揮, 共二百五十二人, 執擊骨朵充禁衛.” 《水滸傳》第五九回: “宋江執着骨朵, 躬身聲喏.” 【夾註】《南村輟耕錄》云: 國朝有四怯薛, 中有云都赤, 三日一次輪流入直, 負骨朵於背. 余究骨朵之義, 嘗記《宋景文筆記》云: 關中人謂腹大者爲“瓜(月+毛)”, 音孤都,

柳黃飾金綉四花⁸⁸)羅搭護。

또 다른 한 사람은 흰 노루가죽에, 초록빛 비단에 사자 모양을 수놓은 목 두른 신을 신었다. 푸른색 모전(毛氈)으로 만든 버선에, 사계화(四季花)를 수놓은 슬갑(膝甲)을 매었다. 초록빛 바탕에 금실로 용(蟒龍)을 수⁸⁹놓은 철릭에, 八寶⁹⁰)骨朶⁹¹) 와 구름무늬를 직금(織金)한 비갑(比甲)에, 금실로 四花⁹²)를 수놓은 비단 더그레(搭護)를 입었다.

八瓣兒鋪翠⁹³)眞言字妝金大帽上, 指頭來大紫鴉忽⁹⁴)頂兒, 傍邊插孔雀翎兒。騎着一個十分脰鐵青⁹⁵)玉面馬⁹⁶), 鞍子是雪白鹿角邊兒, 時樣的黑斜皮鞍橋子,

俗因謂杖頭大者亦爲“瓜(月+匕)”, 後訛爲“骨朶”。朶, 平聲。《事文類聚》云:《宋景文筆記》謂俗以髓爲骨朶, 古無稽。據《國朝統名》, 衛士執髓扈從者爲骨朶子班。予按字書“高”、“擲”皆音竹瓜切, 通作“適”, “適”又音徒果切, “適”之變爲“骨朶”, 雖不雅馴, 其來久矣。今俗音“구도”, 皆上聲。

88) 四花: 也作“四華”。法華六瑞中, 雨華瑞之四花, 卽曼陀羅華、摩訶曼陀羅華、曼殊沙華、摩訶曼殊沙華。一說四花爲分陀利(白蓮華)、优鉢羅(青蓮華)、鉢特摩(紅蓮華)、拘物投(黃蓮華)。

89) 原文의 ‘織金’은 「은실이나 금실로 봉황과 꽃의 무늬 등을 섞어 짠 직물」을 말한다.

90) 原文의 ‘八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물(器物)을 수놓은 것을 ‘八寶’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묘련(妙蓮), 보산(寶傘), 우선해라(右旋海螺), 금륜(金輪), 승리당(勝利幢), 보병(寶瓶), 금어(金魚), 길상결(吉祥結) 등을 ‘八寶’라고 함을 볼 수 있다.

91) 原文의 ‘骨朶’는 긴 막대기 끝에 마늘 모양의 쇠덩이나 나무토막을 붙인 철퇴 같은 무기를 말함이다. 앞의 註 87)번의 설명에서처럼 ‘골타’는 최초의兵器에서 나중에는 儀仗 등의 상징적인 무기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骨朶紋樣’이 만들어져 의복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原文의 ‘骨朶雲’一詞에 관해서 《明史·吳兌傳》에서 볼 수가 있다: 「吳兌, 字君澤, 紹興山陰人。……三娘子入貢, 宿兌軍中, 愬其事。兌贈以八寶冠, 百鳳雲衣, 紅骨朶雲裙, 三娘子以此爲兌盡力」(《明史, 卷二百二十二·列傳第一百一十》). ‘骨朶’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하여 註 87)번의 ‘蒜形或蕪菜形’ 말고도 ‘紅漆柄骨朶·花骨朶·金骨朶·沙袋骨朶·長柄骨朶’ 등의 다양한 명칭을 볼 수 있다. 이에 原文의 ‘八寶骨朶’는 여러 가지 형태의 骨朶 문양의 수(綉)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92) 原文의 ‘四花’는 석가모니(釋迦牟尼)가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할 때 서조(瑞兆)로서 하늘에서 내려 온 백련화(白蓮華)·대백련화(大白蓮華)·홍련화(紅蓮華)·대홍련화(大紅蓮華)의 네 가지 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93) 鋪翠: 以藍緞爲面料, 以綠孔雀羽捻線大面積鋪綉, 此卽所謂“鋪翠”。

94) 紫鴉忽: 紫牙烏是指石榴石寶石, 石榴石的英文名稱爲“Garnet”, 由拉丁文“Granatum”演變而來, 意思是“像種子一樣”。石榴石晶體與石榴籽的形狀、顏色十分相似, 故名“石榴石”。紫牙烏也稱“子牙烏”, 我國珠寶行業也有稱爲“紫鴉烏”的, 相傳其名來源於古代阿拉伯語“牙烏”, 意即“紅寶石”。因石榴石寶石顏色深紅帶紫故稱“紫牙烏”。

95) 鐵青: 青黑色。

銀絲事件. 紅斜皮心兒, 藍斜皮邊兒的座兒. 天青描金⁹⁷⁾獅子韉⁹⁸⁾, 底下垂下着兩個青珠兒結串的駝毛肚帶. 白斜皮鞞皮轡頭, 攀胸下滴溜着珠結子的蓋兒, 野狗尾子罕答哈.

비취(翡翠) 장식⁹⁹⁾에 금사(金絲) 진언자(眞言字)¹⁰⁰⁾를 수놓은 팔판대모(八瓣大帽)에는 손가락 굵기 만한 자야홀(紫鴉忽) 보석이 곡지에 달려 있고, 모자의 한 쪽에는 공작의 깃이 꽂혀 있다. 살이 통통히 오른 검푸른 준마(駿馬)를 탔는데, 말안장은 하얀 사슴뿔 테두리에, 요즘 유행하는 검정 사피(斜皮)로 짠 안장(길맛가지)과 은을 입사한 장식을 달았다. 붉은 사피 바탕에 푸른 사피로 테를 두른 갈개의 안장(鞍裝)이다. 청색 바탕에 금칠(金漆)을 한 사자 문양의 말다래, 말다래에는 푸른 구슬을 꿰어 맨 낙타털로 만든 복대가 드리웠다. 흰 사피로 만든 고들개와 굴레, 가슴걸이에는 실 구슬이 달린 덮개와

96) 玉面馬: 亦作“玉華驄”。泛指駿馬。元·查德卿, 《普天樂·別情》曲: 「玉華驄, 青絲韉。」
 97) 描金: 描金又稱泥金畫漆, 在漆器表面, 用金色描繪花紋的裝飾方法, 常以黑漆作地, 也有少數以朱漆爲地。明·黃成, 《髹飾錄》: 「描金, 一名泥金畫漆, 即純金花文也。朱地、黑質共宜焉。其文以山水、翎毛、花果、人物故事等; 而細鉤爲陽, 疏理爲陰, 或黑裏, 或彩金像。」
 98) 韉: 同“韉”。參看前註63、80。
 99) 原文의 ‘鋪翠’는 비취색 바탕에 금사(金絲: 孔雀羽線)로 각종문양의 수를 넣은 옷감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孔雀羽線으로 ‘팔판(八瓣)에 진언(眞言)의 글자를 새기다’로 보았다.
 100) 原文의 ‘眞言’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비밀스러운 어구를 이르는 말로, 다라니(梵文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음 그대로 외는 일)라고도 한다. 진언(眞言)에 대해 ‘네이버 백과’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주(呪)·신주(神呪)·밀주(密呪)·밀언(密言) 등으로도 번역한다. ‘만트라’는 사교의 도구, 즉 언어를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신들에 대하여 부르는 신성하고 마력적(魔力的)인 어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도에서는 베다 시대부터 널리 행해졌다. 밀교에서는 신밀(身密)·어밀(語密)·의밀(意密)의 3밀 가운데 어밀에 해당하는데, 듣는 자로서는 심오하기 때문에 진언비밀이라고도 한다. 중국·한국·일본 등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음사(音寫)하며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풀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또한 번뇌를 멸하는 것, 즉 지혜를 뜻하는 명(明), 선을 일으키고 악을 누르는 힘을 뜻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짧은 주를 진언, 긴 주를 다라니(陀羅尼)라고도 한다.」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옴 마니 반메훬’은 ‘옴 언꽃에 있는 보석이여!’라는 의미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진언(眞言)인 것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옴 마니 반메훬’을 ‘唵嘛呢叭彌吽’이라고 음사(音寫)하고 있는데, 原文 ‘八瓣兒鋪翠眞言字妝金大帽’는 팔판(八瓣) 형태의 모자에 ‘唵嘛呢叭彌吽’과 같은 진언이 새겨져 있음을 말함일 것이다. 「六字眞言老銅鐘: 周身爲六字大明咒“唵嘛呢叭彌吽”, 上方是炫紋飾, 鐘口是花枝八花瓣. 鐘鼻頂部有人爲切割舊痕, 鐘聲渾厚悠揚. 六字眞言是大慈大悲觀世音菩薩咒, 源於梵文, 象徵一切諸菩薩的慈悲與加持.」앞에 문장은 중국 명대(明代)의 골동품인 동종(銅鐘)에 관한 설명으로, 原文 ‘八瓣兒鋪翠眞言字妝金大帽’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들개 꼬리 모양의 간다개가 매달려 있다.

兩個舍人打扮的風風流流, 蹣的那馬一似那箭, 眞個是好男兒。這的都是前世裏修善積福來, 因此上¹⁰¹⁾, 今世裏那般的自在。《易經》云“積善之家, 必有餘慶。”

두 귀인(貴人)은 매우 멋지게 꾸몄고, 화살처럼 달리는 말하며, 참으로 사내대장부였다. 이 모두가 전생에서 쌓은 공덕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세에서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저렇게 사는 것이다. 易經에 ‘積善之家, 必有餘慶(선을 쌓은 집은, 후손이 잘된다)’ 이라는 말이 있다.

第15話 買狹皮

甲某: 店¹⁰¹⁾裏買狹皮¹⁰²⁾去來.

가게로 狹皮(양가죽)¹⁰³⁾를 사러 갑시다.

乙某: 那個店裏去?

어느 가게로 갑니까?

甲某: 山西店裏去.

‘山西’가게로 갑시다.

乙某: 買狹皮做甚麼?

101) 上: 原因, 方面. 也作“上頭”. 或作“上起”. 徐本 《陳搏高臥》四【步步高】: 「命不快上遭逢着這火醉婆娘, 干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 半夜裏觀乾象。」(劉堅·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78.) 又元·無名氏 《小孫屠》戲文第九齣: 「後來因此閑言語上, 不曾踏上它門。」《水滸傳》第四回: 「洒家不瞞你說, 因爲你上, 就那日回到壯元橋下, 正遇着鄭屠那廝, 被洒家三拳打死了。」(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辭典》, 知識出版社, 1992年, 頁687.) 又, 元·朱凱 《昊天塔》一折: 「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 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990.)

101) 店: 【夾註】 停物貨賣之舍, 客商往來者多寓之. 官所營建收稅者曰官店.

102) 狹皮: 【夾註】 《質問》云: 羊皮去毛, 熟軟, 有鬚眼. 作靴好看. 今按, “狹”字韻書不收, 字義未詳.

103) 原文的‘狹皮’의 ‘狹’字는 사서(辭書)에서 보이지 않는다. 다만 《續老》의 諺解에서 “던피”로 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던피’는 ‘무두질한 양피’, 즉 털과 기름을 뽑아 부드럽게 만든 양가죽을 말함이다.

狍皮(양가죽)를 사서 무엇을 만드시게요?

甲某: 做坐褥¹⁰⁴、皮搭連¹⁰⁵。

갈개와 가죽전대(纏帶)를 만들까 합니다.

乙某: 這兩件東西做時, 使的六個狍皮。

이 두 가지 물건을 만들려면, 狍皮(양가죽) 여섯 장이 필요합니다.

甲某: 賣狍皮的, 好狍皮有麼?

이보시오! 좋은 狍皮(양가죽)가 있소?

店主: 那裏將不好的來? 都是好的. 你要幾個?

어찌 안 좋은 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것입니다.

몇 장이나 필요하십니까?

甲某: 要六個。

여섯 장이 필요하오.

店主: 這六個商量¹⁰⁶價錢着。

이 여섯 장을 흥정해 보시지요.

甲某: 你說都是好的, 怎麼沒一個中使¹⁰⁷的?

물건이 다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 쓸 만한 것이 같소?

店主: 十個指頭也有長的短的. 有的是¹⁰⁸狍皮裏¹⁰⁹, 你子¹¹⁰揀¹¹¹着要。

104) 坐褥: (1) 放在炕几兩側或其他坐具上的褥子, 用厚氈等制成。(2) 坐月子。

105) 搭連: 卽“搭連”, 也作“搭連順袋”。一種長布袋, 中間開口, 可兩頭放東西, 出門時搭在肩上, 垂於胸前背後。元·缺名, 《憑玉蘭》第一折: 「兀那前頭的車上, 掉了我的搭連, 我拾起來者。」(許少峯編, 同前揭書, 頁340。)

106) 商量: 討價還價。《宣和遺事》元集: 「楊志……將一口寶刀出市貨賣, 終日價無人商量。行至日晡, 遇一惡少後生要買寶刀。」(龍濟庵 編著, 《宋元語言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845。)

107) 中使: 頂用, 好使。元·缺名 《藍采和》第二折: 「這言語也不中使, 這言語也不中聽, 你教化些淡齋湯且把你那皮撐。」(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10。)

108) 有的是: 強調很多很多。元·鄭廷玉 《冤家債主》第二折: 「你哥哥那裏有的是錢, 俺幫着你到那裏討去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72。)

109) 裏: 猶助詞“呢”。

110) 子: 與“則”同, 猶“卽”也; “雖”也。《董西廂》四: 「有子有牢房地匣, 有子有欄軍夾畫, 有子有鐵裹榆枷, 更年沒罪人犯他戴他。」凡云有子有, 均猶云有卽有或有雖有也。更年沒猶云終年無。

111) 揀: 挑選, 選擇。

열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것이 있는 법입니다. 가죽은 얼마든지 있으니,
손님께서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甲某: 這一等¹¹²⁾花兒勻大的, 怎麼賣?

이런 무늬가 고른 전피는 어떻게 파시오?

店主: 這六個大的, 每一個討¹¹³⁾五錢銀子, 老實¹¹⁴⁾價錢, 四錢一個家¹¹⁵⁾將去
麼¹¹⁶⁾?

여섯 장의 큰 것은, 장 당 은자 五錢을 받아야 합니다만, 에누리 없는
가격으로, 장 당 四錢에 가져가세요.

甲某: 你來, 我說與你, 沒來由¹¹⁷⁾的胡討價錢怎麼¹¹⁸⁾? 三錢一個家買你的。

이보시오, 내 한 마디 하겠는데, 이유도 없이 어찌 마구 값을 요구하
는 것이요? 장 당 三錢이면 사겠소.

店主: 罷, 罷, 將銀子來看. 六個典皮每一個三錢家算時, 通¹¹⁹⁾該¹²⁰⁾一兩八錢.
그렇게 하시지요, 은자(銀子)나 보여주세요. 여섯 장의 전피가 장 당
三錢이니, 모두 一兩八錢입니다.

- 112) 等: 樣, 類. 一等, 卽“一種、一類”。《來生債》: 「有一等寒儉的泛泛之徒, 他出來的不誠心。」(劉堅·江藍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教育出版社, 1998年, 頁74。)
- 113) 討: 索取; 謀取; 請求。
- 114) 老實: 此作“正經”, “乾脆”。《五鳳吟》第九回: 「況你身體柔弱, 怎麼吃得外面風霜之苦. 不要管我, 你老實自尋生路罷。」(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17。)
- 115) 一個家: 一個. 家, 語助詞。《鐵拐李》四折: 「一個家嗔忿忿, 一個家鬧咳嗽, 改不了司房裏欺人惡性格。」(龍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14。)
- 116) 麼: 語助詞, 語意同“呵”。《董西廂》卷六: 「君瑞、鶯鶯越般的緊, 紅娘道: ‘起來麼, 娘呵!’」(龍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78。)
- 語氣助詞. 用於提議、祈求。又作“波”、“末波”。關漢卿《竇娥冤》二 卜兒白: 「罷麼, 你不要大驚小怪的, 嚇殺我也。」(南立莫,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9。)
- 117) 沒來由: 意謂“無端的、無道理、無緣無故”。元·關漢卿《竇娥冤》三【正宮·端正好】: 「沒來由犯王法, 不提防遭刑憲。」沒來由, 亦作“沒來繇”“沒來頭”。繇, 古同“由”, 由, 頭音近通假, 義并同。(王學奇·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清曲辭通釋》, 語文出版社, 2002年, 頁1313。)
- 118) 怎麼: 做甚麼; 幹甚麼。馮春田《近代漢語語法問題研究》: 「張相云: “作麼”, 卽作甚麼之省文, 有怎麼也。……“作麼(摩)”處在句子謂語位置上, 可分爲兩種情況. 一是相當於現在的“幹麼”或作(幹)甚麼, ……“師云: 又是亂走作麼?(卷十三, 招慶和尚)”……“作麼”的第二類可與“如何”相替換。“何曾失却那作麼?(卷四, 石頭和尚)”(山東教育出版社, 1991年, 頁267~271。)
- 119) 通: 總共, 全部。《水滸全傳》四一回: 「宋江道: 黃文炳家多少人口? 有幾房頭? 侯建道: 男子婦人通有四十五口。」(許少峯 主編, 高文達 主編, 頁1133。)
- 120) 該: 應得, 應當。

甲某: 我的都是細絲官銀¹²¹⁾, 每一兩傾¹²²⁾白臉¹²³⁾銀子出一錢裏。

내 銀子は 질이 좋은 관은(官銀)이라, 백검은자(白臉銀子)로 녹이면
一兩에 一錢은 더 나올 것이요.

店主: 罷, 罷, 我知道。出饋你一錢八分銀子。咳, 你忒細詳。覓得¹²⁴⁾高麗錢,
大快三十年。

네! 네! 내 잘 알고 있습니다. 一錢八分の 銀子を 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꼼꼼합니다. 고려 사람의 돈을 벌었으니, 앞으로 평
생 운수대통¹²⁵⁾ 할 것입니다.

第16話 快說謊

甲某: 李小兒那厮這兩日不見他, 你見來麼? 你饋我尋見¹²⁶⁾了拿¹²⁷⁾將¹²⁸⁾來。

- 121) 細絲官銀; 卽紋銀。銀錠上有細紋道。是一種成色高的銀子。《古今小說》第四卷: 「那尼姑貪財, 見了這兩錠細絲白銀, 眉花眼笑道: “大官人, 你相與是誰? 委我幹甚事來?”」(許少峯編, 高文達主編, 頁1990。)
【夾註】 銀十品曰十成, 曰足色, 曰成色, 曰細絲, 曰手絲兒, 曰吹螺, 曰白銀; 九品曰九成, 曰青絲; 八品曰八成。總稱元寶。
- 122) 傾: 鎔鑄。《警世恒言·賣油郎獨占花魁》: 「當下兌足十兩, 傾成一個足色大錠, 在把一兩八錢, 傾成水絲一小錠。」
【夾註】 《質問》云: 將碎銀子與銀匠, 化了傾成整錠。
- 123) 白臉: 【夾註】 《質問》云: 將好銀子與銀匠, 化了傾成細絲雪白錠兒, 又有光色好看, 卽十成銀也。
- 124) 覓得: 竊得, 搞到。《古今小說》第三六卷: 「好, 好。你使得, 也未是你會處。你還今夜再覓得我這包兒, 我便是你會。」(許少峯編, 同前揭書, 頁1271。)又, “覓”, 求取。《元典章·刑部七》: 「不合逼令妻阿孫, 妾彭鸞哥爲娼接客覓錢。」(劉堅·江藍生主編, 同前揭書, 頁194。)按, “覓錢”爲“掙錢”。
- 125) 原文 ‘大快三十年’에 대한 諺解는 「高麗人 錢을 어든들 크게 삼십 년을 즐기라」로 되어 있고, 또한 왕하·유재원·최재영이 역주한 《朴通事譯註(3)》(中國研究 第40卷, 211쪽)에서도 「고려사람 돈을 번들 내가 30년을 즐겁게 살겠습니까?」라는 번역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大快三十年’은 글자 그대로 ‘30년이 즐겁다’ 또는 ‘평생 즐겁다’의 의미로 보았다. 《兒女英雄傳》 第三十九回에는 「喜得這老頭兒一生任俠好義, 頗以無子爲憾. 如今一朝有後, 眞是大快平生.(喜得라는 노인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後嗣가 없음을 꺾이나 한스러워 했다. 지금은 대를 이을 자식을 얻어 한평생의 삶이 보람차고 즐겁다)」이라는 글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大快平生’의 의미와 原文의 ‘大快三十年’을 같은 의미로 보고, 이에 ‘간간히 고려 사람의 돈을 벌었으니, 재수가 있어 장사가 더 잘 된다’는 덕담으로 해석하였다.
- 126) 尋見: 找到。《西遊記》第八回: 「容弟子去尋見母親, 然後頭頂香盆, 重建殿宇, 報答師父之

李小兒 그 작자가 요즘 보이지 않는데, 보셨습니까? 찾으시면 잡아끌고서 저에게 좀 데려다 주세요.

乙某: 你不理會得¹²⁹, 那厮高麗地面來的宰相們上¹³⁰做牙子¹³¹, 那狗骨頭¹³²知他¹³³那裏去? 誑惑¹³⁴人東西, 不在家. 你尋他怎麼¹³⁵?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자는 고려에서 온 고관대작들에게서¹³⁶ 기간꾼 노릇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개뼈다귀 같은 놈이 어딜 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남의 것을 등쳐먹느라 집에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자를 찾아 뵈 하시게요?

甲某: 他少¹³⁷我五兩銀子裏. 別人便¹³⁸一兩要一兩利借饋, 他京裏臨¹³⁹起

深恩也!

- 127) 拿: 同“拏”。押帶。元·關漢卿《救風塵》第四折:「(孤云: 衙門外誰鬧? 那過來!(張千拏入科, 云)告人當面。」
- 128)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如: 般將(搬運)、唱將(演唱)、持將(持)、取將(收取)等。
- 129) 理會得: 領悟, 理解。元·缺名《勸金環》楔子:「兄弟也, 我則理會得壯志男兒當自強, 省可裏將他廝料量。」(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6。)
- 130) 上: 此有“那兒”、“那裏”之意。《變文集·李陵變文(95頁)》:「過失推向將軍上, 漢家兵法任交虜。(此言把過失推到將軍李陵身上。將軍上, 指將軍方面。)(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 131) 牙子: 賣買雙方的居間介紹者, 經紀人。《水滸傳》六五回:「我生在潯陽江邊, 長在小孤山下, 作賣魚牙子, 誰不認得!」(劉堅·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312。)
- 132) 狗骨頭: 罵人話, 猶賤種。狗頭, 指生成的品性。
- 133) 知他: 略同現代漢語的反語詞“管他”、“不是~嗎”、“怎麼能~呢”之意。王伯成《天寶遺事》祿山謀反〔三煞〕:「動無喘息行無汗, 坐也昏沉睡不安, 兩行淚道漬成斑. 每日家做件的胡友胡兒, 胡舞胡歌, 胡吹胡彈, 知他是甚風範?」(拙稿, <老乞大語彙考>, 《中國語文論叢》, 第39輯)
- 134) 誑惑: 欺蒙。(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75。)
- 135) 怎麼: 做甚麼; 幹甚麼。馮春田《近代漢語語法問題研究》:「張相云:“作麼”, 即作甚麼之省文, 有怎麼也。……“作麼(摩)”處在句子謂語位置上, 可分為兩種情況。一是相當於現在的“幹麼”或“作(幹)甚麼”, ……“師云: 又是亂走作摩?”(卷十三, 招慶和尚)……“作摩”的第二類可與“如何”相替換。“何曾失却那作摩?”(卷四, 石頭和尚)」(山東教育出版社, 1991年, 頁267~271。)
- 136) 原文的 ‘上’은 方位詞이다. ‘上’은 본래 명사 뒤에 붙어 물체의 표면 또는 위쪽의 방향을 나타내는 용도로 쓰였지만, 나중에 ‘장소’, ‘범위’, ‘사물의 어느 한 방향’ 등의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原老》나 《齣老》에서 볼 수 있는 ‘人稱名詞+上’에서의 ‘上’에 경우, ‘這/那裏, 這/那邊’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다.
- 137) 少: 欠, 該。《金瓶梅詞話》第二回:「西門慶道:“干娘, 我少你多少茶果錢?” 王婆道:“不多, 由他!”」(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21。)
- 138) 便: 借, 貸。敦煌資料《丙午年翟信子便麥粟契》:「丙午年六月二十四日, 翟信子及男定君

身¹⁴⁰)時節¹⁴¹)，那般磕頭禮拜¹⁴²)央及¹⁴³)我，限至周年，本利八兩銀子，寫定文書借與他來。到今年半了，只還我本錢，一分利錢也不肯還。因此上¹⁴⁴)，半夜三更裏¹⁴⁵)起來¹⁴⁶)，上他家門前叫喚着討時，他睬¹⁴⁷)也不睬。那驢糞下來的，只¹⁴⁸)躲着我走，討了半年不肯還我，把我的兩對新靴都走破了。他那養漢的老婆，聒言美語的，只說明日後日還我，知他是幾個明日？只是¹⁴⁹)快¹⁵⁰)說謊，真個氣殺¹⁵¹)我。

그자가 나에게 은자 닷 냥을 빚을 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한 냥에 이자를 한 냥씩 받고 빌려주는데, 그 작자가 서울을 떠날 무렵에 그렇게도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면서 내게 사정을 하여서, 기한을 일 년으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여덟 냥으로 하기로 문서 작성을 하고

二人、先辛丑年於汜法律面上便麥陸石，粟兩石，中間其麥粟並總填還多分。」(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5。)

- 139) 臨：在……之前，在即將……的時候。王勃《滕王閣序》：「臨別贈言，幸承恩於衛錢。」
- 140) 起身：動身，登程。
- 141) 時節：時候。《七國春秋》卷中：「只見你每來時節，有一人從後門去了。」(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288。)
- 142) 禮拜：行禮叩拜。《西游記》：「不等宣詔，直至御前，朝上禮拜。」
- 143) 央及：請求，懇求。元·關漢卿《救風塵》第一折：「當初姨姨引章要嫁我來，如今却要嫁周舍，我央及你勸他一勸。」
- 144) 上：原因，方面。也作“上頭”。或作“上起”。徐本《陳搏高臥》四【步步高】：「命不快上遭逢着這火醉婆娘，干誤了我晚夕參聖一爐香，半夜裏觀乾象。」(劉堅 江藍生 主編，同前揭書，頁278。)
- 又元·無名氏《小孫屠》戲文第九齣：「後來因此閑言語上，不曾踏上它門。」《水滸傳》第四回：「酒家不瞞你說，因為你上，就那日回到壯元橋下，正遇着鄭屠那廝，被酒家三拳打死了。」高文達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頁687。又元·朱凱《吳天塔》一折：「他將我這尸骸恁般摩弄，因此上向兒行一星星悲控。」(許少峯主編，同前揭書，頁990。)
- 145) 裏：在此作表示時間的助詞。《董西廂》卷一：「病裏逢春，四海無家，一身寄客。」
- 146) 起來：起床，起身。
- 147) 睬：理睬，答理。王實甫《破窯記》：「不是遠老泰山為人忒歹，親女婿昂然不睬。」
- 148) 只：此作“就”。明·孫梅錫《琴心記·陽關送別》：「(丑應介)小姐，只此告別。(旦)且住。孤紅快些出來。」
- 149) 只是：一直，一味。《二刻拍案驚奇》卷九：「(楊素梅)好生不快，又不好說得出來。對着龍香只是啼哭。」
- 150) 能，善於。元·白仁甫《梧桐雨》第四折：「這待詔手段高，畫的來沒半星兒借錯，雖然是快染能描，畫不出沉香亭畔回鸞舞，花萼樓前上馬嬌，一段兒妖嬈。」(許少峯 編，同前揭書，頁1069。)
- 151) 殺：殺，放在動詞後，表示程度深。字也作“煞”，作“熬”。元·缺名《舉案齊眉》第一折：「哎，屈沉殺三尺龍泉萬卷書，何也波如，非浪語。」(許少峯 編，同前揭書，頁1647。)

빌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일 년 반이 되었는데도 원금만 갚고 이자는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한 밤중에 일어나 그 작자의 집 앞에서 돈을 갚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지만, 그 작자는 대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되먹지 못한 놈은 날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치고, 반년 동안이나 달라고 했지만 주질 않아서, 내 신발 두 켤레만 달아빠졌습니다. 그 서방질이나 할 그 작자의 마누라는 감언이설로 내일갚겠다 모레 주겠다 말만하는데, 그놈의 내일은 몇 개나 되는지, 줄곧 거짓말만 하는 통에 내 정말 울화통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乙某: 可知¹⁵²)快說謊。債不殺人? 常言道: 人貧只¹⁵³)爲慳¹⁵⁴), 少¹⁵⁵)債快說謊。

정말 거짓말을 잘 하는군요. 빛이 사람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¹⁵⁶) 옛말에 ‘人貧只爲慳, 少債快說謊(사람이 가난하면 자잘해지고, 빛이 많으면 거짓말이 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16話 和尚偷媳婦

甲某: 一個和尚偷弄別人的媳婦, 偷將去的時節, 正撞見¹⁵⁶)他的漢子¹⁵⁷), 却拿¹⁵⁸)着那和尚, 打的半死刺活的。傍邊看閑的人們說: “你是佛家弟子,

152) 可知: 自然; 確實。

153) 只: 同上註 148)

154) 慳: 吝嗇, 小氣。

155) 少: 欠。董解元《西廂記諸宮調》卷一: 「短命冤家薄情煞, 兀的不枉教人害, 少負你前生眼兒責。」元·睢景臣《哨遍·高祖還鄉》套曲: 「少我的錢差發內旋撥還。」

156) 原文 ‘債不殺人’에 대해 諺解는 ‘빛이 사람을 죽게 아니하느냐’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不’는 ‘豈不’ 즉 反語의 어감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므로, 諺解를 따라서 ‘빛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다.

156) 撞見: 遇見; 突然相遇。《紅樓夢》第103回: 「金桂的母親着了急道: 這寶蟾必是撞見鬼了, 混說起來!」

157) 漢子: 指稱丈夫。《醒世姻緣傳》第七四回: 「你也不是我的漢子, 你就是我的親哥兒弟兄。」(許少峯編, 同前揭書, 頁720。)

158) 拿: 同‘拏’。押帶。元·關漢卿《救風塵》第四折: 「(孤云: 衙門外誰鬧? 那過來! (張千拏入

穿着衲襖¹⁵⁹，將着鉢盂¹⁶⁰，披着袈裟，揀¹⁶¹那清淨山庵裏安禪悟法却不¹⁶²好？更不時¹⁶³，歸佛敬法看經念佛也好。而今沒來由¹⁶⁴偷別人的媳婦怎麼¹⁶⁵？去吃¹⁶⁶這一頓打也是。你布施¹⁶⁷人家齋飯¹⁶⁸錢，無處發落¹⁶⁹，到處裏養老婆，這一等¹⁷⁰和尚不打他要甚麼！”衆人再問和尚：“你敢偷人媳婦麼？”那和尚說：“再也不敢。小僧從今日準備箬笠¹⁷¹、瓦鉢¹⁷²，往深山裏懺悔去。”

어떤 중이 남의 처자를 농락하고자 피어내 도망치려고 할 때, 그녀의 남편과 마주쳐 잡혀 반 죽도록 얻어맞았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놈은 불가에 귀의한 사람으로, 승복을 입고 발우(鉢盂)를 들고 그리고 가사(袈裟)를 걸치고 조용한 암자를 찾아서 참선을 하고 깨우침을 얻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¹⁷³ 불가에 귀의

科, 云)告人當面。」

- 159) 衲襖: 衲, 僧衣。同“納”。僧徒的衣服, 常用許多碎布補綴而成, 因即以爲僧衣的代稱。衲襖, 一種斜襟的夾襖或棉襖, 此指和尚所穿的大袖上衣。
- 160) 鉢盂: 亦作“鉢釘”。僧人的食器。
- 161) 揀: 挑選, 選擇。
- 162) 却不: 豈非, 豈不。元·關漢卿《金線池》第二折:「若他也是虔婆的見識, 沒有嫁我之心, 却不我在此亦無指望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62。)
- 163) 時: 用作語氣間歇之詞, 猶現代漢語中“呵”或“啊”字。《拜月亭》一【金盞兒】:「怕不問時, 權做弟兄; 問着後, 道做夫妻。」(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三,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年, 頁351。)
- 164) 沒來由: 無端的、無道理、無緣無故。參看前註 117)
- 165) 怎麼: 做甚麼; 幹甚麼。參看前註 118)
- 166) 吃: 挨, 遭。《三遂平妖傳》第六回:「我從來愛取笑人, 昨日不合撩撥了這婦人, 吃胡子打了一頓拳頭。」(許少峯編, 同前揭書, 頁244。)
- 167) 布施: (1)把財物等施舍給別人。《警世通言》7卷:「每年五月重五, 入寺齋僧解粽, 今日依例布施。」(2)化緣, 向別人求施舍。(3)施舍給寺院的財物。(吳士勛 王東明 主編, 同前揭書, 頁71)
- 168) 齋飯: 施舍給僧尼的飯食。
- 169) 發落: 處置, 辦理。安排。《京本通俗小說·菩薩蠻》:「明日分付臨安府, 量輕發落。」
- 170) 這一等: 一種, 一類。這等, 猶言這樣、這般。按, “等”, 《廣韻》云:“類也”。《倩女離魂》一【混江龍】白:「梅香, 似這等, 幾時是了也?」(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四,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0年, 頁418。)
- 171) 箬笠: 用箬竹葉及篾編成的寬邊帽。《紅樓夢》第四五回:「寶玉頭上戴着大箬笠, 身上披着蓑衣。」
- 172) 瓦鉢: 陶制的容器, 似盆而較小。
- 173) 原文「更不時的更……時」是現代漢語的“再……的話”와 類似하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不’

하여 佛法을 받들며 佛經이나 공부하고 염불이나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무례하게도 남의 부인을 농락하려 했는가? 얻어맞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네 놈은 신도들이 시주(施主)한 밥과 재물을 보시(布施)를 행함¹⁷⁴에 있어, 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에서 계집질을 일삼는데, 이런 중놈을 때리지 않는다면 누굴 때린다는 말인가?」하고 말했다. 사람들은 또 중에게 「네 놈은 또 남의 계집을 농락할 것인가?」하고 묻자, 중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소승은 오늘부터 삿갓(箬笠)과 바리를 마련하여, 깊은 산속으로 참회를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乙某: 常言道: “一年經¹⁷⁵蛇咬, 三年怕井繩。”

옛말에 ‘뱀에게 물리면, 두렛줄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18話 痢疾

甲某: 咳, 貴人難見, 你那裏有來¹⁷⁶? 這兩日不見, 你來¹⁷⁷怎麼這般黃瘦?

아이쿠! 귀인은 만나기 어렵다하더니,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즘 보이지 않으시더니, 어찌 이렇게 누렇게 뜨고 여위셨습니까?

乙某: 我這幾日害¹⁷⁸痢疾, 不會¹⁷⁹上馬。

는 ‘動詞’로써 “아니다”, “아니라고 여기다”의 의미이다. 이에 전체를 “그것도 못한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등의 의미로 번역을 하였다.

174) 原文의 ‘布施’는 일반적으로 신도 등이 사원(寺院)에 시주를 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위의 註 167)번 (1)의 설명에서처럼 절집에서 재물을 나눠 주는 것도 ‘布施’이다. 그래야만 「你布施人家齋飯錢」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당신 신도들이 시주한 재물을 보시(나누어 줌)함에 있어’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다. 諺解에서도 ‘네 人家에 보시 齋飯錢을’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175) 經: 經過, 經歷。

176) 來: 此作語助詞, 略同現代漢語中的啊、呢、啦、哩。

177) 來: 此作句中襯詞, 用以強調: 猶麼。金仁杰 《追韓信》第二折: 「丞相道將咱來不住的趕, 韓信則索把程途盼。」(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91.)

178) 害: 生病, 患。《古今小說》第三六卷: 「候興一個兒子, 十來歲, 叫做胖哥, 發脾寒害在病床。」(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14.)

내 요 며칠 이질(痢疾)을 앓느라, 말을 타지 못해서 외출을 못했소이다.

甲某: 咳, 我不會知道來, 早知道時, 探望去好來, 你休怪。

이런! 전 몰랐습니다, 일찍 알았었다면, 찾아뵈어야 했는데, 너무 나 무라지 마시지요.

乙某: 不敢, 相公¹⁸⁰。

천만의 말씀입니다.

甲某: 如今都好了不會¹⁸¹)?

지금은 좀 다 나왔습니까?¹⁸²)

乙某: 一個太醫¹⁸³)看¹⁸⁴)我小肚上使一針, 脚內踝上灸了三壯¹⁸⁵)艾來。如今¹⁸⁶)飯也吃的¹⁸⁷)些個, 却¹⁸⁸)無事了。

의원께서 내 아랫배에 침을 한 대 놓고, 발 안쪽 복사뼈에 세 번의 쑥뜸을 떠 주셨습니다. 지금은 밥도 좀 먹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甲某: 虛灸那¹⁸⁹)實灸?

179) 不會: 沒有, 從來沒有。元·關漢卿《竇娥冤》第四折:「小的認便認得, 慌忙之際可不曾問的他名姓。」

180) 相公: 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181) 不會: 與現代漢語“沒有”同。放在句末構成是非疑問句。太田辰夫著 蔣紹愚、徐昌華譯《中國語歷史文法》:「“沒有”用作准句末助詞以前, 用的是“不會”。例如:“那寄書的人去了不會?”(救風塵2)“沒有”也用於完成或過去的場合。這種用法出現於明代。例如:“你灌了他些姜湯兒沒有?”(金19)”(北京大學出版社, 1987年, 頁363.)

182) 本文의 ‘不會’은 現代漢語의 ‘沒有’와 같다. 文尾에 놓여 긍정부정의 의문문을 만든다. ‘沒有’의 文型이 있기 전에는 ‘不會’이 그 역할을 하였다.

183) 太醫: 古代宮廷中掌管醫藥的官員。宋元以後用爲對一般醫生的敬稱。

184) 看: 朝, 向。《清平山堂話本·花燈輜蓮女成佛記》:「蓮女道:“你不理會的, 要你如何? 放了一隻手, 看着和尚臉上, 只一拍, 打個大耳光。”(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27.)

185) 壯: 指艾炷灸中的計數單位。每灸一個艾炷, 稱爲一壯。

186) 如今: “現今”、“而今”也。如今語“現在”同。在中古和近古普通的用語中“現今”這樣的意思不用“現在”, 而經常是用“如今”、“而今”等。就是在《紅樓夢》中, 用“現在”的也非常少, 而且多是強調事實確實存在, 而不是單純的表示時間。……“現在”常用作“現今”的意義是從清末開始的。(太田辰夫 著, 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 頁259.)

187) 的: 動詞後綴。也作‘得’。關漢卿《玉鏡臺》四【得勝令】:「你着寶釵簪雲鬢, 我着金環釵酥醕, 山呼, 共謝得當今主。」(南立葵, 同前揭書, 頁61.)

188) 却: 已, 已經。《水滸傳》二一回:「却說本縣知縣到任以來, 却得二年半多了。」(吳士助 王東明 主編, 同前揭書, 頁813.)

189) 那: 語氣助詞, 用在選擇問句全面一個選擇項的後面。《元典章·戶部十》:「這言語是實那是虛?」

뜸은 간접구(間接灸)¹⁹⁰입니까? 직접구(直接灸)¹⁹¹입니까?

乙某: 怎麼¹⁹²虛灸? 將¹⁹³一根兒草來, 比着只一把長短較了, 將¹⁹⁴那草稍兒放在脚內踝尖骨頭上, 那稍兒到處, 把那艾來揉¹⁹⁵的細着, 一個脚上三壯家, 灸的直到做灰。這般時, 艾氣肚裏入去, 氣脉通行便好了。只是腿上十分無氣力。

어찌 간접구이겠습니까? 풀을 한 가닥 가져다,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잘라,¹⁹⁶ 그 풀의 끝을 발 안쪽의 복사뼈에 대고, 풀의 다른 한쪽이 닿는 부위에, 쑥을 가늘게 뭉치게 말아서, 한 쪽 발에 세 뼘 씩, 재가 될 때까지 뜸을 떼습니다. 그렇게 하니, 쑥 기운이 배속으로 들어가, 기맥이 뚫려 쾌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다리에 기운이 없을 뿐입니다.

甲某: 你且休上馬, 忙甚麼? 且¹⁹⁷着乾飯¹⁹⁸、肉湯, 慢慢的將息¹⁹⁹却坏²⁰⁰好?

190) 간접구(間接灸)는 피부(혈 자리) 위에 된장, 소금, 마늘, 생강 등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쑥을 태워 온열을 투입시키는 뜸을 말한다. 흥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무흥구'라고도 한다. 原文 '虛灸'에 대한 諺解는 '우각뜸'으로 되어 있다. '우각(牛角)뜸'은 혈 자리에 우각(牛角)을 대고 뜸을 뜨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91) 직접구(直接灸)는 혈 자리에 바로 쑥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피부에 가벼운 화상을 입히는 뜸을 말한다. 피부(혈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고 해서 '유흥구'라고도 한다. 原文 '實灸'에 대한 諺解는 '실뜸'이라 했다.

192) 怎麼: 爲什麼。《漢宮秋》一折: 「我則問那待詔別無話, 却怎麼這顏色不加搽?」(龍濟庵 編著, 同前揭書, 頁658。)

193) 將: 拿, 取。

194) 將: 此作介詞“把”。《西遊記》第三回: 「霎時收了法像, 將寶貝還變做個綉花針兒, 藏在耳內。」(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898。)

195) 揉: 團弄。如“揉麵”、“揉泥球”。

196) 原文 “比着只一把長短較了”에 대해서 「그저 한 쑥 기리룰 견초와 끈처(한 뼘 길이로 잘라)」로 언해되고 있다. 설사 복통의 이질(痢疾)을 치료함에 있어「뜸을 뜨는 부위는 발 안쪽의 복사뼈에서 위로 세 마디(三寸), 즉 정강이뼈 측면의 뒤쪽이다. 환자는 네 손가락 나란히 하여, 약지를 복사뼈에 식지(검지)를 정강이뼈 안쪽으로 대면, 식지가 닿는 바로 그 부분이 뜸을 놓는 뜸자리이다(三陰交穴, 在內踝尖上三寸, 脛骨內側面後緣, 患者可四指并攏, 小指放在對側內踝尖上, 食指放在與脛骨內側面後緣交界處)」라는 中國醫書의 설명을 볼 수 있다.

197) 且: 先。《紅樓夢》第五十回: 「外頭冷得很, 你且吃杯熱酒再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18。)

198) 乾飯: 指米飯。《西遊記》, 第八五回: 「是一庄村人家好善, 蒸白米乾飯、白麵饅饈齋僧的。」

199) 將息: 調養, 將養。

200) 却不: 豈非, 豈不。元·關漢卿 《金線池》第二折: 「若他也是虔婆的見識, 沒有嫁我之心, 却不我在此亦無指望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62。)

잠깐 동안은 말을 타지 마시지요, 바쁘실 것이 뭐 있겠습니까? 먼저 밥과 고깃국으로 천천히 몸을 조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第19話 猜謎語

甲某: 我說幾個謎²⁰¹)你猜。

내 수수께끼를 몇 개를 낼 터이니 맞춰보시오.

乙某: 你說我猜。

말해 보세요, 내 맞춰보겠습니다.

甲某: 大哥山上播²⁰²)鼓, 二哥來來去去, 三哥待要分開, 四哥待要一處。

큰 형은 산에서 북을 치고, 둘째는 왔다 갔다 하고, 셋째는 헤어지려고 하고, 넷째는 함께하려고 합니다.

乙某: 我猜大哥是棒錘, 二哥是運斗²⁰³), 三哥是剪子, 四哥是針線。你再說我猜着。

큰 형님은 망치이고, 둘째는 다리미, 셋째는 가위이며, 넷째는 바늘과 실입니다. 내 또 맞출 것이니 말씀해 보세요.

甲某: 當路²⁰⁴)—科²⁰⁵)麻, 下雨開花, 刮風結子。

길에 한 포기의 삼(麻)이, 비가 내리면 꽃을 피우고, 바람이 불면 열매를 맺습니다.

乙某: 這的是²⁰⁶)傘。

이것은 우산입니다.

201) 謎: 【夾註】隱語也。正音“미”, 俗或呼“미”。

202) 播: 敲打。

203) 運斗: 就是“熨斗”。

204) 當路: 路中間。

205) 科: 古同“棵”。

206) 這的是: 這個是, 此便是。元·孟漢卿《魔合羅》第三折: 「這的是打家劫盜盜完的賊, 這個是犯界茶鹽取定的詳。」(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68。)



甲某：一箇長大漢撒²⁰⁷大鞋，白日去，黑夜來。

키가 큰 사내가 큰 신발을 끌고, 낮에는 갔다가, 한밤중에 돌아옵니다.

乙某：這個是燈臺。

이것은 등잔받침입니다.

甲某：(乞皮)²⁰⁸皺氈，(乞皮)皺被，(乞皮)皺姑娘裏頭睡。

쭈글쭈글한 요를 깔고, 쭈글쭈글한 이불을 덮고, 쭈글쭈글한 아가씨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乙某：這箇是核桃。

이것은 호도입니다.

甲某：金瓮兒銀瓮兒，表裏無縫兒。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 안팎에는 틈이 없습니다.

乙某：這箇是鷄鳴²⁰⁹。

이것은 계란입니다.

甲某：鐵人鐵馬，不着²¹⁰鐵鞭不下馬。

철인(鐵人)이 철마(鐵馬)를 타다, 철편(鐵鞭)이 없으면 말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乙某：這箇是鎖子。

이것은 자물쇠입니다.

甲某：牆上一塊土，吊下²¹¹來禮拜²¹²。

207) 撒：只把脚尖伸進鞋內，拖着走。《西游記》第三九回：「褪下無憂履，與他一雙舊僧鞋撒了。」
 208) (乞皮)：【夾註】《音義》云：(乞皮)，音疙。今按：疙，音그。疙疸，딕딕。
 209) 鷄鳴：就是“雞蛋”。“蛋”，“鳴”音同，而通假。“鳴”，又名鷓鴣。動物名。外形如蝙蝠而大。冬眠於巖穴中。睡時倒懸其體。食甘蔗和芭蕉等的汁液。
 210) 不着：不得，沒有。《金瓶梅詞話》第九十回：「(來旺)作辭雪娥，挑擔兒出門，正是：不着家神，弄不得家鬼。」(許少峯 編，同前揭書，頁158。)
 211) 吊下：留下，遺下。《黃梁夢》二折：「你說沒人，這頂帽子是誰吊下的？」(龍潛庵 編著，同前揭書，頁315。)
 212) 禮拜：信徒向神明膜拜。《紅樓夢》第六九回：「鳳姐比賈璉更急十倍……於是天地前燒香禮拜，自己通誠禱告。」(許少峯 編，同前揭書，頁1133。)

담벼락에 흙 한 덩어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절을 합니다.

乙某: 這箇是雀²¹³兒。

이것은 참새입니다.

甲某: 一個老子當路睡, 過去的過來的弄我的, 不知道我的麤和細。

한 노인네가 길 가운데서 잠을 자는데, 왔다갔다 나를 만지작거리지만, 내 것이 굵은지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乙某: 這箇是礪子。

이것은 연자(맷돌)입니다.

甲某: 牆上一箇琵琶, 任²¹⁴誰不敢拿他。

담벼락에 琵琶²¹⁵가 있는데,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乙某: 這箇是蝎子²¹⁶。

이것은 전갈입니다.

甲某: 家後一群羊, 箇箇尾子長。

집 뒤에 양 떼가 있는데, 하나하나 꼬리가 깁니다.

乙某: 這箇是櫻桃。

이것은 앵두입니다.

甲某: 一間房子裏五箇人剛²¹⁷坐的²¹⁸。

한 칸의 방에 다섯 사람이 겨우 앉아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靴子。

이것은 (가죽)장화입니다.

甲某: 金罐兒鐵携兒²¹⁹, 裏頭盛着白沙蜜²²⁰。

213) 雀: 鳥類的一科, 吃糧食粒和昆蟲。特指“麻雀”, 泛指小鳥。

214) 任: 盡管, 無論。明·沈采《還帶記》第二七出: 「任他走上焰摩天, 脚下騰雲須趕上。」(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579.)

215) 琵琶: 타원형(橢圓形)의 몸통에 끈고 짧은 자루가 달린 현악기(絃樂器)의 하나.

216) 蝎子: 全蝎, 又名鉗蝎、全虫、蝎子。

217) 剛: 僅, 只。

218) 坐的: 卽“坐地”。坐着, 坐定。

219) 携兒: 携, 帶也。提也。携兒, 卽“帶子”。

220) 白沙蜜: 蜂蜜又稱蜜糖、白蜜、石飴、白沙蜜。

금 항아리에 쇠로 만든 꼭지가 달리고, 안에는 꿀이 담겨져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梨兒。

이것은 배입니다.

甲某: 一個長甕兒窄窄口, 裏頭盛着糯米酒。

긴 옹기에 좁디좁은 주둥이, 안에는 찹쌀로 빚어 만든 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乙某: 這個是妳子。

이것은 젓입니다.

甲某: 滿天星宿一箇月, 三條繩子由你曳。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세 가닥의 끈으로 자기 마음대로 끌어당깁니다.

乙某: 這箇是秤。

이것은 저울입니다.

甲某: 兩個先生合賣藥, 一箇坐一箇跳。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약을 파는데, 한 사람은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위로 뛰어오릅니다.

乙某: 這箇是藥刀。

이것은 약재를 썰는 작두(藥刀)입니다.

甲某: 弟兄三四箇, 守着停柱坐。

형제 서넛이, 기둥을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蒜。

이것은 마늘입니다.

甲某: 鑽天錐, 下大水。

하늘을 뚫는 송곳, 그 아래에는 큰물이 있습니다.

乙某: 這箇是塔兒。

이것은 탑입니다.

甲某: 咳, 都猜着了也, 眞箇是精細²²¹)人。

대단하십니다! 다 맞추었습니다, 정말로 영특한 사람이십니다.

第20話 獸醫

甲某: 這裏有獸醫²²²)家麼?

이곳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乙某: 那個紅橋邊有一個張獸醫, 他快²²³)醫頭口²²⁴)。

저 홍교(紅橋) 근처에 수의사 장(張)씨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축을 잘 본다고 합니다.

甲某: 我的赤馬害骨眼²²⁵), 不住的臥倒打滾, 一宿不吃草, 將那裏治去來, 就²²⁶)蹄子放血²²⁷)。他要多少功錢?

내 적마(赤馬)가 눈꺼풀이 처지는 골안(骨眼)²²⁸)을 앓고, 또 자꾸 넘어

- 221) 精細: 亦作“精精細細”。精明細心。《金瓶梅詞話》第五回:「團頭何九, 他是箇精細人, 只肯他不肯殮。」(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智識出版社, 1992年, 頁417。)
- 222) 獸醫: 【夾註】《南村輟耕錄》云: 世以療馬者曰獸醫, 療牛者曰牛醫, 《周禮·獸醫》註: 獸, 牛馬之屬。按此則療牛者亦當曰獸醫, 今俗呼療馬者曰馬獸醫。
- 223) 能, 善於。元·白仁甫《梧桐雨》第四折:「這待詔手段高, 畫的來沒半星兒借錯, 雖然是快染能描, 畫不出沉香亭畔回鸞舞, 花萼樓前上馬嬌, 一段兒妖嬈。」(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69。)
- 224) 頭口2: 牲口。《元典章》:「凡達達漢人, 偷頭口一個, 陪九個。」王鏊·曾明德, 《詩詞曲語辭集釋》, 語文出版社, 1991年, 頁391。頭口, 指騾馬驢牛之類大牲畜。元·高文秀《薛范叔》第二折:「這的是喂頭口的草料, 怎生與小生吃?」(《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 225) 骨眼: 【夾註】《質問》云: 馬害肚疼打滾, 割眼內肉, (後略)。
- 226) 就: 就便。趁便。關漢卿《單鞭奪槊》二末白:「我正要看洛陽城哩, 如今領百十騎人馬同段志賢打探, 就觀看他洛陽城去。」(藍立萸 編著, 《關漢卿戲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137。)
- 227) 放血: 就是用針具或刀具刺破或划破身體特定的穴位和一定的部位, 放出少量血液, 達到治療疾病的目的。
- 228) 原文‘骨眼’에 대한【夾註】(위의 註 225)의 설명은 「말이 베가 아파 뒹굴면, 눈의 살점을 파낸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지만, 諺解에서는 「눈에치 고터주고」라고 하여 ‘눈병의 일종’으로 풀이하고 있다. 《朴通事諺解》보다 앞선 《繡譯朴通事》本에서도 「내 절다 미리 누네치나서」라고 諺解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짐승의 눈에 티가 생기거나 각막에 이상이 있는 병세를 ‘骨眼’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요약된 논문에서도 확인할

어지고 땡굴고, 밤새도록 여물도 먹지 않고 있는데, 그곳으로 몰고 가서 치료도 하고, 간 김에 발굽에서 피도 좀 빼줘야겠군요.²²⁹⁾ 그런데 치료비는 얼마나 달라고 할까요?

乙某: 不問²³⁰⁾多少與他些個便是²³¹⁾。

얼마인가는 따지지 말고, 조금만 주면 될 것입니다.

甲某: 治得馬好時, 多少不打緊。

치료만 잘 해준다면, 얼마이든 상관은 없지요.

甲某: 張五, 你饋我醫馬骨眼, 一發就蹄子放血着。

이보시게 장오(張五), 내 말의 골안(骨眼)을 고쳐주고, 그리고 내친김에 발굽에서 피를 좀 빼주시게나!²³²⁾

獸醫: 醫了, 慢慢的牽將去, 乾淨田地²³³⁾上樹底下拴着, 喂的好着。

수 있다. 李濟洲(不要用割“骨眼”“姜芽”治牲畜肚子痛): 「有些群衆, 當馬、驢、驢肚子痛時, 誤認爲是“骨眼”·“姜芽”所引起, 因而, 流行着用針、刀割“骨眼”·“姜芽”的不好習慣. 採用這種辦法是錯治無效, 反成其害. “骨眼”, 群衆也哄“閃骨”, 家畜生理解剖學稱瞬膜(第三眼瞼), 它的作用是: 防止外界灰塵異物, 保護眼球, 是牲畜的生理(摘自“百度”) 《寧夏農林科技》1965年12期). 原文의 ‘骨眼’은 위의 설명들을 종합해보면, 옛사람들은 말 등의 짐승들이 배알이를 하게 되면 눈에 이상이 있다고 여기고 치료를 했음을 볼 수 있다. 즉 배알이가 ‘骨眼’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다. 이에 왕하·유재원·최제영, <朴通事諺解> 譯註(3) (<中國研究> 第40卷 07년)에서는 「내 적마가 배알이 때문에 자꾸 자빠져 ……」라는 번역을 볼 수 있고, 註 228)번에는 「原文의 ‘骨眼’을 언해문에서는 ‘눈에치(말의 눈알이 갑자기 붓고 굳어지는 병)’라 하였으나, <質問>의 설명에 의하면 ‘배알이(복통)’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229) 말발굽의 징 등을 잘못 박았거나 제때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했을 경우, 짐승을 제대로 길을 수가 없게 되는데, 발굽에서 피(고름)를 빼주어 낫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230) 問: 論. 《秦并六國評話》卷下: 「不問士宦豪傑之家, 盡行起發赴刑場。」《水滸傳》第四十回 「當下去十字街口, 不問軍官百姓, 殺得尸橫遍野, 血流成渠。」(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 826.)

231) 便是: 助詞. 用於句末, 表示肯定語氣. 關漢卿 《陳母教子》一二 末白: 「我得了官, 母親喜歡便是, 可怎生道怪我?」

232) 原文의 ‘一發’는 문맥에 따라 ‘一起’, ‘越發’, ‘索性’, ‘乾脆’, ‘一總’ 등의 그 용법이 다양하다. 原文의 ‘骨眼’과 ‘放血’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당시의 사람들은 말의 배알이는 骨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눈을 치료했을 것이다. 아마도 발굽이 부거나 징을 잘못박아 발굽에 진물이 생겨, 치료를 하는 김에 피를 좀 빼달라고 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一發’를 ‘索性’, ‘乾脆’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왕하·유재원·최제영, <朴通事諺解> 譯註(3) (<中國研究> 第40卷 07년)에서는 「여보게 張五! 내 말 배알이를 고쳐주게. 다른 치료는 할 것 없이 그냥 발굽에서 피를 빼게」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치료를 하였으니, 천천히 몰고 가시고, 깨끗한 곳의 나무그늘에 매어 놓고, 잘 먹이십시오.

甲某: 咱男子漢沒馬時怎麼過? 半步也行不得。馬是第一寶貝, 常言道: “狗有灑草之恩²³⁴, 馬有垂繩之報²³⁵。”

남자들에게 말이 없다면 어떻게 지낸다는 말이요? 아무데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은 제일의 보물입니다. 옛말에 ‘개는 천초지은(灑草之恩)을 하고, 말은 수강지보(垂繩之報)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第21話 剃頭

甲某: 叫將那剃²³⁶頭的來。你的刀子快也鈍?

머리 깎는 사람을 불러다 주게나. 자네의 칼은 잘 드는가?

剃頭的: 我剃頭的, 管甚麼來刀子鈍?

난 머리를 깎는 사람인데, 어찌 칼이 무디겠습니까?

甲某: 你剃的乾淨²³⁷着, 不要只管²³⁸的刮²³⁹, 舌的多頭疼。剃了²⁴⁰, 撒開

233) 田地: 地方, 場所。鄭庭玉《看錢奴》第三折: 「廟官哥哥, 俺兩口兒一徑來還願的, 趕燒炷兒頭香, 暫借一坨兒田地, 與我歇息咱。」(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835.)

234) 灑草之恩: 亦作“濕草之恩”。據《太平廣記》, 唐代太和年間, 廣陵人楊生有一愛犬時刻不離身邊。一個寒冷的冬日, 楊生酒醉臥於荒草中, 遇火起風烈, 情勢緊急。愛犬狂吠而主人不醒, 便幾次跳入冰冷的水中, 以水濡濕四周乾草, 使主人得以脫險。【夾註】晉太和中, 楊生養狗, 甚愛之。(中略)……地火尋過去, 生醒而去。

235) 垂繩之報: 亦作“垂繩之義”。《異苑》, 說的是前秦世祖皇帝苻堅在與容沖的一次戰役中, 不幸戰敗, 落荒而逃。不料一失足掉在了山洞裏, 爬又爬不上來。在這個千鈞一發之際, 他的坐騎突跪在溝邊, 將繩繩垂了下來, 苻堅抓住繩繩爬上來, 才脫了大難。【夾註】漢高祖與項王會鴻門, 舞劍事急, 謀脫。疋馬甫行, 道傍有一智井, 馬到井邊不肯行。漢王恐迫者至, 下馬入井。項王追至井傍, 見馬跡至井而止, 謂韓王在井, 令人下井搜求。見井口有蜘蛛罩網, 鶻鴝一雙出井飛去, 謂無人在中, 項王還壁。翌日, 其馬到井垂繩, 韓王執之而出。

236) 剃: 用刀刮去毛髮。

237) 乾淨: 齊整, 周正。《初刻拍案驚奇》第十六卷: 「那兩個媳婦當日不合開門出來, 却見一個中年婆娘, 人物也倒生得乾淨。」(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05.)

238) 只管: 只顧; 一味。

239) 刮: 用刀子去掉物體表面的東西。

240) 了: 完畢, 完成。

頭髮梳。先將那稀篦子²⁴¹)篦了，將那挑針挑起來，用那密的篦子好生²⁴²)篦着，將風屑²⁴³)去²⁴⁴)的爽利²⁴⁵)着。梳了，縮²⁴⁶)起頭髮來。將那鑷兒²⁴⁷)來摘了鼻孔的毫毛，將那鉸刀²⁴⁸)斡²⁴⁹)耳，捎(竹+息)來掏一掏耳朵。與你五個銅錢。

단정하게 깎고, 무턱대고 밀지만 마시오, 너무 밀면 머리가 아프오. 머리를 다 깎고 나면, 머리를 풀고 빗질을 하시오. 먼저 성긴 참빗으로 빗고, 도침(挑針)²⁵⁰)으로 머리를 가르고, 촘촘한 빗으로 잘 빗어, 비듬을 깨끗하게 제거하시오. 머리를 다 빗었으면, 머리를 묶으시오. 족집게로 콧구멍의 털을 뽑고, 작은 가위로 귀속의 털을 자르고, 귀이개로 귀지를 파내면, 내 동전 다섯 닢을 주겠소.

第22話 娶娘子

某甲：別處一個官人²⁵¹)娶娘子²⁵²)，今日做筵席。女孩兒那²⁵³)後婚²⁵⁴)，今年

241) 篦子：也作“篦子”。一種齒比梳子密的梳頭用具，稱“篦子”。

242) 好生：此作“認真，着着實實”解。《龍圖耳錄》第八七回：「只要三角酒一完，咯噔的就打起哈起來了，飯也不能好生吃。」(許少峯 編，同前揭書，頁729。)

243) 風屑：頭皮屑。指頭皮。

244) 去：除，除去。

245) 爽利：爽快，痛快。《初刻拍案驚奇》第二二卷：「把從前連本連利一算，約該十來萬了，就如數搬將出來，一手交兌。……七郎見他如此爽利，心下喜歡。」(許少峯 編，同前揭書，頁1736。)

246) 縮：把長條形的東西盤繞起來打成結。

247) 鑷兒：夾取毛髮、細刺及其他細小東西的器具，一般用金屬制成，通稱“鑷子”。

248) 鉸刀：剪刀，亦稱“鉸刀”。

249) 斡：挖；掏取。斡耳，即“挖耳”。

250) 原文的‘挑針’은 ‘비녀’와 비슷하나, 비녀는 한 쪽에 장식이 되어 묶은 머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挑針’은 깎기모양의 것으로 머리를 가르거나 고르는 기능을 한다.

251) 官人：官府的人，公職人員。《三遂平妖傳》第十一回：「太尉當日却來得早些個，往從待班閣子前過，又遇着一個官人相揖，這官人正是開封府包待制。」(許少峯 編，同前揭書，頁681。)

252) 娘子：妻。《鴛鴦被》一折：「員外今年二十三歲，有多少人家與他說親，只是沒個十分中意的，因此上還不會有娘子。」(龍潛庵 編著，同前揭書，頁788。)

253) 那：語氣詞，無義。《殺狗勸夫》三折：「且叫科云：“孫二開門來！”正末唱：“是誰人叫門那

才十六的女孩兒。

한 관인(官人)이 장가를 갔는데, 오늘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後妻인데, 올해 겨우 열여섯 먹은 색시라고 합니다.

乙某: 下²⁵⁵)多少財錢?

예물 비용은 얼마나 들었다고 합니까?

甲某: 下一百兩銀子, 十表十裏²⁵⁶), 八珠環兒, 滿頭珠翠²⁵⁷), 金廂²⁵⁸)寶石頭
面²⁵⁹), 珠鳳冠, 十羊十酒²⁶⁰)裏。那女孩兒生的十分可喜²⁶¹), 俊如觀音
菩薩。好刺綉²⁶²)生活²⁶³), 百能百巧的。

예단(납괘)으로 은 백 냥, 걸감과 안감의 열 벌의 옷감과 팔주환(八珠
環), 그리고 만두주취(滿頭珠翠) 관모(冠帽)²⁶⁴), 금과 보석으로 상감
한 머리장식과 珠鳳冠(주봉관), 그리고 많은 술과 고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색시는 귀엽고 예뻐 곱기가 마치 관음보살과 같다고 합니
다. 그리고 바느질도 잘하고, 온갖 재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聲?。」(龍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374.)

- 254) 後婚: 續絃, 繼室。元·缺名《神奴兒》第四折:「[正末云]兀那李阿陳, 我再問你咱: [唱]你莫不是李員外娶得後婚? [大旦云]俺是緝角兒夫妻。」(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69.)
- 255) 下: 用, 花費。
- 256) 表裏: 做衣服的面子和裏子的衣料。《拜月亭》二折:「如今將着羊酒表裏, 取梅英去。」《獨角牛》三折:「若是今年無對手呵, 銀碗花紅表裏段匹, 都是他的。」(顧學頤·王學奇, 《元曲釋詞》卷一,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年, 頁132.)
- 257) 滿頭珠翠: 插有珍珠與翡翠之冠帽。《金瓶梅》第七十二回:「林氏又早戴着滿頭珠翠, 身穿大紅通袖袍兒, 腰繫金鑲碧玉帶, 下着玄錦百花裙。」
- 258) 廂: “鑲”的假借字。明·賈仲明《金安壽》第二折:「我這頭巾上珍珠砌成文藻, 玉兔鵲金廂繫綉袍。」(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027.)
- 259) 頭面: 首飾, 頭部裝飾品。元·李行道《灰闌記》第一折:「是不許他再穿衣服, 重戴頭面。」
- 260) 羊酒: 舊迎親所送的禮物中例有羊和酒。故以羊酒泛指結婚時的采禮。元·關漢卿《魯齋郎》第二折:「今日個妻嫁人夫做媒, 自取些奩房斷送陪隨, 那裏也羊酒、花紅、段匹。」(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996.)
- 261) 可喜: (1) 令人高興。(2) 可愛。元·關漢卿《魯齋郎》楔子:「他的個渾家, 生的風流, 長的可喜。」
- 262) 刺綉: 刺綉, 古稱針綉, 是用綉針引彩線, 按設計的花紋在紡織品上刺綉運針, 以綉迹構成花紋圖案的一種工藝。古代稱“蕃”、“針蕃”。因刺綉多為婦女所作, 故又名“女紅”。
- 263) 生活: 指手工製品。《元典章·戶部八》:「令各處鋪戶之家, 長現在鐵器生活須管立限發賣了畢。」(劉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5.)
- 264) 原文의 ‘滿頭珠翠’은 앞의 註 257)번에서처럼, 구술로 치장된 冠帽의 이름이다.

乙某：幾時下紅定²⁶⁵)?

납폐(納幣)는 언제 했습니까?

甲某：這月初十立了婚書，下了定²⁶⁶)禮。半頭²⁶⁷)娶²⁶⁸)將來做筵席，第三日做圓飯²⁶⁹)。筵席了²⁷⁰)時，便²⁷¹)着²⁷²)拜門²⁷³)。對月²⁷⁴)又做個大筵席，女孩兒家親戚們都去會親²⁷⁵)。

이 달 초열흘에婚書を 작성하고, 定婚의 禮를 올렸답니다. 그 다음날은²⁷⁶) 신부를 맞이하는 친영(親迎)에 따른 큰 잔치를 열고, 셋째 날에는 신혼부부가 동석하여 음식을 함께 먹는 원반(圓飯)의 차례가 있지요. 이러한 순서의 잔치가 끝나면, 비로소 처갓집 가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신혼 한 달이 되면 또 큰 잔치를 열게 되는데, 색시 집안의 친척들이 초대되어 가지요.

乙某：可知²⁷⁷)都去裏?

265) 下紅定：即“下定”。聘禮。舊時男家向女方定親的禮物上都施以紅絹，稱紅定。元·關漢卿，《調風月》第三折：「燕燕上復傳示煞曾經，誰會甚兒女成婚聘？甚的是許出差下紅定？」(許少峯 編，同前揭書，頁1996。)

266) 定：訂婚，也指訂婚禮物。《水滸全傳》第四七回：「這個正是祝朝奉第三子，喚做祝彪，定着西村扈家庄一丈青爲妻。」(許少峯 編，同前揭書，頁464。)

267) 半頭：半中間。宋·楊萬里《寄題李與賢似剡庵》詩：「是時八月欲半頭，鏡湖不是人間秋。」(許少峯 編，同前揭書，頁54。)

268) 娶：迎娶。指男子到女家迎親。

269) 圓飯：新婚次日，夫婦同席宴飲，謂之“圓飯”。《兒女英雄傳》第二八回：「我可得張羅我們姑爺姑奶奶的圓飯去了。」

270) 了：完畢，完成。

271) 便：才。關漢卿《四春園》一 王員外白：「他當初有錢時，我便和他做親家；他如今消乏了也，……我怎生與他做親家？」(藍志莫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頁16。)

272) 着：差，派遣。

273) 拜門：新人結婚三日或滿月後，夫婦同至妻家拜望，謂之拜門。俗稱“回門”。

274) 對月：新婚滿月。元·缺名《隔江鬪智》第二折：「你回去對哥哥說，等我對月回門之日，我見母親，自有話講。」(許少峯 編，同前揭書，頁498。)

275) 會親：又稱“瞧親”，是男家宴請女方親屬的禮儀。

276) 原文‘半頭’에 대해서 諺解에서는 ‘보름’이라 하였는데, 許少峯은 앞의 註 267)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半中間’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婚書を 초열흘 첫 날에 거행하고, 셋째 날 부부가 圓飯을 하였으니 ‘半頭’를 그 사이 중간 날짜인 둘째 날의 의미로 보았다. 보름이라고 했을 때, 뒤에서 오는 ‘第三日’의 출현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이에 ‘다음 날’로 번역을 하였다.

물론 다 갖겠지요?

甲某: 那官人是今年十九歲, 好文章, 諸般才藝, 無計算的錢糧²⁷⁸。

신랑은 올해 열아홉 살인데, 글과 여러 재주가 훌륭하고, 재물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乙某: 媒人也有福, 正着了, 也多尋鈔。

중매쟁이도 복입니다. 성사를 시켰으니, 재물을 많이 얻었겠습니다.

甲某: 可知有福裏. 依體例²⁷⁹十兩裏一兩家除²⁸⁰時, 得十兩銀子。

복이 있고말고요. 관례대로 열 냥에 한 냥을 뺀다면, 은 열 냥을 받았겠지요.

乙某: 這兩口兒夫妻好爽利²⁸¹。常言道: “一夜夫妻百夜恩。”²⁸²

이 부부는 참으로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옛말에, “一夜夫妻百夜恩(한 번 맺은 부부의 인연은 백년해로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 參考文獻 >

原典類

《朴通事新釋·朴通事新釋諺解》, 서울대학교규장각.

《老乞大·朴通事諺解》, 亞細亞文化史(影印本), 1973年.

汪維輝, 《朝鮮時代漢語教科書叢刊》(全四冊), 中華書局, 2005年.

錢南揚 著, 《永樂大典戲文三種校注》, 臺灣·華正書局, 1990年.

王學奇等校注, 《關漢卿全集校注》, 河北教育出版社, 1990年.

277) 可知: 亦作“可知道”。猶當然。元·張壽卿《紅梨花》第一折:「不知前世今生甚的緣法, 相會在花枝下, 可知道劉郎喜殺, 又值我玉真未嫁」

278) 錢糧: 財賦和糧食。此作“財產”。

279) 體例: 禮法, 格范。明·高則誠《琵琶記》三九齣:「媳婦事舅姑合體例, 相公怎不教女孩兒同去?」(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111.)

280) 除: 除去, 去掉。

281) 爽利: 爽快。《古今小說·臨安裏錢婆留發迹》:「今日手裏無錢, 却賭得不爽利」

282) 一夜夫妻百夜恩: 一旦建立了夫妻關係, 深厚的感情歷久不衰。元·關漢卿《救風塵》第三折:「可不道一夜夫妻百夜恩, 便可便息怒停嗔。」

李小強·王小忠注釋，《西廂記》，中國文聯出版公司，1997年。

劉堅·蔣紹愚 主編，《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商務印書館，2002年。

王士點·商企翁(元)，《秘書監志》，百度(인터넷)電子版。

詞典類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中華書局，1991年。

張相，《詩詞曲語辭匯釋》，上海古籍出版社，2009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一，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3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二，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4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三，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年。

顧學頡·王學奇，《元曲釋詞》卷四，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0年。

劉堅·江藍生 主編，《元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8年。

劉堅·江藍生 主編，《宋語言詞典》，上海教育出版社，1999年。

許少峯 主編，《近代漢語詞典》，團結出版社，1997年。

許少峯，《近代漢語大詞典》，中華書局，2008年。

龍潛庵 編著，《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年。

高文達 主編，《近代漢語詞典》，知識出版社，1992年。

吳士勛·王東明 主編，《宋元明清百部小說詞語大辭典》，陝西教育出版社，1992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呂叔湘，《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1982年。

張惠英，《金瓶梅俚俗難詞解》，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3年。

《中朝詞典》，中國民族出版社，1986年。

《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1年。

中國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纂室 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1986年。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編，《現代漢語詞典(修訂本)》，商務印書館，2001年。

王鏊·曾明德，《詩詞曲語辭集釋》，語文出版社，1991年。

王鏊，《詩詞曲語辭例釋》，中華書局(增訂本)，1991年。

王鏊，《唐宋筆記語辭匯釋》，中華書局(增訂本)，1990年。

王鏊，《宋元明市語匯釋》，中華書局(修訂增補本)，2008年。

蔣禮鴻 主編，《敦煌文獻語言詞典》，杭州大學出版社，1994年。

- 蔣禮鴻 著,《敦煌變文字義通釋》,上海古籍出版社,1997年。
 劉昌惇,《李朝語辭典》,延世大學校出版部,2005年。
 藍立萸 編著,《關漢卿戲曲詞典》,四川人民出版社,1993年。
 李法白·劉鏡芙 編著,《水滸語詞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9年。
 張永言 等編,《簡明古漢語字典》,四川人民出版社,1991年。
 卜鍵主編,《元曲百科大辭典》,學苑出版社,1991年。
 史東,《簡明古漢語詞典》,雲南人民出版社,1985年。
 王學奇·王靜竹 撰著,《宋金元明清曲辭通釋》,語文出版社,2002年。
 白維國 編,《金瓶梅詞典》,中華書局,1991年。
 譚其驥 主編,《中國歷史地圖集》,地圖出版社,1982年。
 謝紀鋒 編纂,《虛詞話林》,黑龍江人民出版社,1992年。
 楊樹達 著,《詞詮》,中華書局,1990年。
 廖珣英 編,《全宋詞語言詞典》,中華書局,2007年。
 陸澹安 著,《小說詞語彙釋》,上海錦綉文章出版社,2009年。
 박성훈,《번역박통사사전》,태학사,2010年。

著書類

- 呂叔湘著·江藍生補,《近代漢語指代詞》,學林出版社,1985年。
 胡安竹 等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山東教育出版社,2000年。
 梁伍鎮,《老乞大朴通事研究》,태학사,1998年。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大學出版社,1987年。
 香坂順一著·江藍生 白維國 譯,《白話語匯研究》,中華書局,1997年。
 香坂順一著·植田均 譯,《水滸詞匯研究(虛詞部分)》,文津出版社,1992年。
 江藍生,《近代漢語探源》,商務印書館,2000年。
 俞光中·植田均,《近代漢語語法研究》,學林出版社,2000年。
 孫錫信,《近代漢語語氣詞》,語文出版社,1999年。
 董志翹·蔡鏡浩,《中古虛詞語法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4年。
 曹廣順,《近代漢語助詞》,語文出版社,1995年。
 王雲路·方一新,《中古漢語語詞例釋》,吉林教育出版社,1992年。
 胡竹安·楊耐思·蔣紹愚 編,《近代漢語研究》,商務印書館,1992年。
 蔣紹愚·江藍生 編,《近代漢語研究(二)》,商務印書館,1999年。

-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 編,《現代漢語虛詞列釋》,商務印書館,1982年。
房玉清 著,《實用漢語語法》,北京語言學院出版社,1996年。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增訂本),商務印書館,1999年。
呂叔湘,《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商務印書館,1984年。
日·青山定雄 編,《中國歷代地名要覽》,(臺灣)洪氏出版社,1975年。
蔣紹愚·曹廣順 主編,《近代漢語語法史研究綜述》,商務印書館,2005年。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北京大學出版社,2005年。
李泰洙,《老乞大四種板本語言研究》,語文出版社,2003年。
傅雨賢 等著,《現代漢語介詞研究》,中山大學出版社,1997年。
魏耕原,《唐宋詩詞語詞考釋》,商務印書館,2006年。
郭作飛,《張協狀元詞彙研究》,巴蜀書社,2008年。
張美蘭,《近代漢語論稿》,江西教育出版社,2004年。
陳秀蘭,《敦煌變文詞彙研究》,四川民族出版社,2002年。
程湘清 主編,《宋元明漢語研究》,山東教育出版社,1992年。
李嵩興 等著,《元代漢語語法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9年。
정승혜 등 공역,《박통사 원나라 대도를 거닐다》,학고방,2011年。

論文

- 楊聯陞,〈老乞大朴通事裏的語法語彙〉,《東方學志》,1955年(臺灣)。
慎鏞權,〈老乞大가 반영하는 漢語의 성격에 대하여〉,《中國語文學》第48輯,2006年。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1)〉,《中國研究》第37卷,2006年。
최재영·정윤철,〈朴通事諺解譯註(2)〉,《中國語文論叢刊》18輯,2006年。
王霞·유재원·최재영,〈朴通事諺解譯註(3)〉,《中國研究》第40卷,2007年。
王霞·유재원,〈朴通事諺解譯註(4)〉,《中國研究》第42卷,2008年。
王霞·崔宰榮,〈朴通事諺解譯註(5)〉,《中國語文論叢刊》第23輯,2008年。
拙稿,〈董西廂與王西廂裏的語氣助詞用例考〉,《中國語文論叢》,第36輯,2008年。
拙稿,〈近代漢語語氣詞用例考(上)〉,《中國語文論叢刊》第22輯,2008年。
拙稿,〈老乞大語彙考〉,《中國語文論叢》,第39輯,2008年。
拙稿,〈老乞大語彙考(二)〉,《中國學論叢》,第25輯,2009年。
拙稿,〈老乞大語彙考(三)〉,《中國語文論叢》,第41輯,2009年。
拙稿,〈老乞大語彙考(四)〉,《中國語文論叢》,43輯,2009年。
拙稿,〈老乞大語彙考(五)〉,《中國語文論叢》,44輯,2010年。

- 拙稿, <老乞大語彙考(六)>, 《中國語文論譯叢叢》, 27輯,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一)>, 《人文科學》, 10輯, 光州大學校,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語彙註釋(二)>, 《人文科學》, 11輯, 光州大學校, 2011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一)>, 《中國語文論叢》, 47輯, 2010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二)>, 《中國語文論叢》, 48輯, 2011年.
- 拙稿, <原本老乞大新註新譯(三)>, 《中國語文論叢》, 50輯, 2011年.
- 이수진, <老乞大處置文의 把/將字研究>, 《中國學》, 26輯, 2006年.
- 맹주억, <老乞大諺解 諸板本에 반영된 통사규칙 남집의 유형>, 《중국학연구》 42집.
- 맹주억, <老乞大諺解類 諸板本中'着'의 번역에 관한 연구>, 《중국연구》 제39권.
- 金美娘, 《老乞大 4종판본 전치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鄭旭, 《老乞대이 V着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年.
- 鐘煥, <民族史研究中的“他者”視角>, 《歷史研究》 第1期, 2008年.

< 中文提要 >

《老乞大》近二萬字, 分上、下卷。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為線索, 用對話的形式, 表現道路見聞、住宿飲食、買賣貨物等等, 中間插入一些宴飲、治病的段落。《朴通事》的字數近三萬字, 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 分成上、中、下三卷。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式, 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個方面, 涉及宴會、買賣、農業、手工業、詞訟、宗教、游藝、景物等多項內容。兩書的史料價值, 非常之高。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 “從史學看, 有許多難得的關於元、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從語學看, 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元代到清代的《老乞大》、《朴通事》系列, 是研究元代到清代漢語變化寶貴資料。

《朴通事》與《老乞大》同為高麗、朝鮮兩朝人學習漢語的兩部會話教科書。關於二書原著者的生平時代, 雖不可詳考, 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 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最初編著年代為元代, 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老乞大》本子, 韓國學者稱之為《原本老乞大》)。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 《翻譯朴通事》(上; 1517年)、《朴通事諺解》(上、中、下; 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其中《翻譯朴通事》為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 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 可惜已經不全(只存上卷, 缺中、下卷)。《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朴世華等十二人對《翻譯朴通事》所作的修訂。《翻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

數文字有差異外，內容基本一致，由於《繙譯朴通事》已經不全，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為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老乞大集覽》和《單子解》，《朴通事諺解》有許多雙行小註，即所謂的“夾註”)一書，是一份“解釋詳明，徵引繁富”的珍貴資料，對研究漢語語言、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值。並且近來韓國、中國、日本等國家的學者，全面而不同角度對這兩系列書進行研究，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為題目，力求在前人研究的基礎上，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並給與研究《朴通事》、《老乞大》一系列研究者的小小的推動。

關鍵詞：朴通事，朴通事諺解，朴通事譯註，朴通事新註新譯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 9.	2012. 2. 8.	2012. 2. 19.	2012. 2. 25.	2012. 2. 29.